

할렐루야, 이 세상 천지에 종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영광 올려 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불의와 악함을 아시오니, 주의 자녀들을 언제 어디서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 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와 말씀이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종만하지 아니하니  
예레미야 23장 24절

### TGC, 탈 기독교 시대에 목회자-신학자가 필요한 이유 우리는 더 이상 기독교 세계에서 살고 있지 않다

칼 마르크스는 한 때 "철학이 하는 일이라고는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게 고작이다. 관건은 세상을 바꾸는 일이다"라면서 철학을 향해 불평을 쏟은 적이 있다. 그렇다면 신학은 어떤가? 세상을 바꾸는 일에서 철학보다 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오늘날 신학은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과거의 유물이라며 경솔하게 일축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나 그 견해는 근시안적이

다. 사실 목회자-신학자야말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다(엡 4:8). 말씀으로 정보를 받고 성령으로 권능을 얻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해석하고 바꾸기 위해서 목회자-신학자를 쓰신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탈 기독교 세계라는 위기 가운데로 들어가 그 시대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제자를 훈련한다.



### TGC, 온라인에서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를 피하는 법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가 만연한 시대, 진실을 추구함으로써 진리를 사랑해야 한다

그 영상을 보는 내 눈시울이 붉어졌다. 우크라이나인 아버지는 나라를 떠나기 위해 버스에 오른 아내와 딸을 보고 울었다. 같이 떠나자는 소리 없는 간절함을 담은 딸의 작은 손은 아버지를 향해 뻗어 있었고, 아내의 눈은 이미 너무 울어서 통통 부어 있었다.

이런 이별은 우크라이나 문제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영상 속 남자는 우크라이나 군인이 아니었다. 러시아 군인이었다. 이 영상을 보도한 방송사가 틀린 것이다. 그들은 아마도 트위터에서 이 영상을 찾아냈을 것이다.  
트위터 이야기가 나온 김에, 내가 그 영상을 보기 하루 전에 한 친구가 (자신을 포함한) 대부분의 미국인이 소아성에 욕망을 경험한다고 주장한 매트 왈쉬(Matt Walsh)의 트위터 스크린샷을 문자로 보냈

-  3면 시론 은희곤 목사
-  4면 푸른초장 박성호 목사
-  8면 기독교 명저의 초대 이윤석 목사

#### 진행 중인 재난

우리는 더 이상 기독교 세계에서 살고 있지 않다. 탈 기독교 세계의 숨길 수 없는 징후로는 기독교의 영향력 감소, 줄어드는 교인 수, 교회에 대한 존경심 저하, 우리 문화의 주요 요소인 신앙, 가치 및 관행에 대한 기독교의 영향력 감소 등이다. 탈 기독교 세계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따로 구분해서 이해하고 반응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존 업다이크의 소설 In the Beauty of the Lilies에 나오는 목사처럼, 20세기 어느 시점에 선가 서구 세계는 신앙을 잃었음을 깨달았다. "탈(post)이라는 단어가 기독교를 재정의하는 속도는 말 그대로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이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어떤 하나의 주장 또는 과학적 발견 때문에 기독교 시대가 종말을 맞은 건 아니다. 찰스 테일러의 A Secular Age는 사회가 세상을 이미지화하고 그 속에 인류를 자리매김하는 방식에서 볼 때, 탈 기독교라는 혁명은 내부적이었다고 말한다. 이유는 복잡하지만, 결과는 명백하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를 명백하게 느끼거나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재는 이제 거의 그럴듯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질과 현재가 전부이다. 탈 기독교 문화가 빛은 많은 결과 중 하나가 눈에 띈다. 문해력의 상실(post-literacy)이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그리고 종교 개혁과 인쇄술 이후로도 언제나 활자(word) 중심이었다. 그러나 탈 활자 문화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의사소통한다. 글자는 더 이상 자랑할 만한 매체가 아니다.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로 넘치는 문화에서 (장황한 설교를 하는 사람에게 미안한 일이지만) 집중하는 시간은 단 몇 분을 넘기지 못한다.  
탈 기독교와 탈 활자를 합친

결과는 성경 문맹이다. 더 이상 성경 기독교의 문법, 이야기 또는 논리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성경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는 것과 성경 속 66권의 다양한 책과 장르를 통일된 정경의 일부로 읽어내는 방법을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다. 탈 기독교 문화에서 그리스도인조차도 성경을 잘 읽는 방법 및 해석상 불일치의 해결을 놓고 고군분투한다.  
사람들은 여전히 뉴스를 소비하지만, 복음(좋은 소식)은 탈 기독교 세계에서 거의 들리지 않는다. 넘쳐나는 정보와 끊임 없는 속보는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할 소식, 곧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우리 세상에 침입하고 있다는 진짜 속보에 대해서 둔감하게

만든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생각할 수도 없는데 말이다.  
최초 대응자로서 목회자-신학자  
세속주의자에게 세상은 움직이는 물질이며, 그 물질은 인간이 무언가를 만들지 않는 한 무의미하다. 어느 정도 환멸을 느낄 정도로 디스토피아 이야기는 차고 넘친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문제의식을 느끼기보다는 차라리 즐기다가 죽기를 원한다.  
지금은 목회자-신학자가 최초 대응자 역할을 감당해야 할 재난 상황이다. 이들이 긴급 상황과 위기에 모습을 드러내고 도와야 한다.  
(3면으로 계속)

다. 충격을 받은 나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매트 왈쉬의 페이지를 방문했다.  
물론 내가 받은 트위터는 이미 꽤나 일소문이 났고, 매트가 거기에 대한 답을 쓴 상태였다. 그가 대답한 이유는 그 트위터가 진짜였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 이미지가 포토샵 조작이었기 때문이다.  
매트 왈쉬 트위터 사건 이를 전에 열린 머스크(Elon Musk)는 나를 "NFT & Crypto" 트위터 목록에 추가했다.  
(4면으로 계속)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Sharing Bread for Soul** 월드쉐어USA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김스전기열)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 JAM@ 증보기도 컨퍼런스

**“지금은 교회가 부흥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지난 2월 캔터키 에즈베리대학에 부흥의 신평탄을 터뜨리셨습니다. 그 부흥의 불꽃이 우리 교회로, 우리 도시로, 미국과 세계로 타오르기를 소원하며, 부흥을 사모하는 교회 증보기도팀들을 증보기도 컨퍼런스에 초대합니다.

**일시** 2023년 8월 9일(수) 오후 2시 - 11일(금) 밤 10시  
**개최장소** 은혜한인교회 (714) 446-6200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강사**

 한기홍 목사 은혜한인교회	 김춘근 교수 JAMA / GLDI	 호성기 목사 필라 안디옥 교회	 이성철 목사 달라스 중앙감리교회	 진유철 목사 나성 순복음교회	 위성교 목사 북가주 뉴라이프교회	 허연행 목사 뉴욕 프러미스교회
 강민수 목사 시카고 레이크뷰연합교회	 손정훈 목사 아틀란타 한인연합교회	 구봉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심상은 목사 갈보리산교회	 배성호 목사, MD JAMA JH&H	 안지영 목사 메릴랜드 세소망교회	 강순영 목사 JAMA

**참가대상**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훈련 받기를 원하시는 목회자와 성도들  
**등록비** \$100 (교재 + 식사비 포함) 온라인 등록 (IPC.JAMAPRAYER.COM) 등록마감: 7/30/2023  
**숙소** 호텔은 교회별 또는 개인별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ipc.jamapraye.com에서 인근호텔을 확인하십시오. 새벽 예배가는 시간과 지역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차편을 제공합니다.  
**문의** 강순영 목사: (310) 995-3936 / JAMA: (903) 804-4016 이메일: conference@jamaglobal.com 우편주소: 22392 FM 16 W., Lindale, TX 75771

IPC.JAMAPRAYER.COM

JAMA 한국어 웹사이트  
QR 코드  
온라인 등록 링크

발행인 칼럼

하나님의 휴가(休暇)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神은 人間の 땅을 떠나라’는 박찬홍 작가의 장편소설이다. 그 책을 읽어보지 못했지만, 그 영향력은...

‘신은 인간의 땅을 떠나라’는 지극히 무엄(無嚴)한 외침은 근자(近者)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도 들을 수 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그렇다.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장엄(莊嚴)하신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업신여기는 데서 오는 것이며, 사람의 가장 큰 비극은 타락한 사람에 대한 가르침을 소홀히 하는 데 기인(基因)한다.

더운 여름이다. 잠시라도 휴가 가실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섭섭하지만 우리가 몇 날을, 아니 더 오래 휴가 간다고 해도 세상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갈 것이다.

TGC,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임금 인상을 요구해야 할까?

나는 16살 때에 동네에 있는 작은 안경점에서 처음으로 일을 시작했다. 그 때 내 시급은 6.5달러였다. 당시에는 엄청 큰돈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나의 경력, 경험, 교육이 늘어나면서, 또한 기쁨값 외에도 내가 감당해야 하는 비용들이 늘어나면서 나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경건한 삶에 필요한 모든 지혜(벧후 1:3)를 주신다고 믿는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모든 충만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처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가난 또는 풍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

잠언에는 단 하나의 기도만 등장하는데, 그것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

하나님께서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만큼만 정확하게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바울의 가르침은 하나님께 모든 필

내핍의 경제를 넘어서서 점점 더 많은 부를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는 임금에 대한 성경의 원리를 여러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라면 임금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당신의 경험과 경력을 고려해보면 지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이 당신에게 마땅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임금 인상을 요구해야만 하는가? 다음에 제시되는 실제적인 문



성경은 노동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동시에 우리의 필요를 항상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것을 가르친다

고 부하게도 마옵시고”(잠 30:7-9)라는 기도이다. 가난할 때나 부할 때 우리는 죄를 범하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이라는 관점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샘 스톰스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의 모든 재산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비롯되었다.”

풍요와 필요

요를 구하라는 것이었다(빌 4:6).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바울의 만족은 자신이 누군가의 돌봄을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되었다.

지금 너무 부족한 것보다는 너무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될 때가 많다. 세계가 극심한 가난에서 벗어나면서 이 문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될 것이다.

마땅히 받아야 할 당신의 임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세계 경제는

제들을 통하여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들을 생각할 수 있다.

1. 인상을 요구하는 이유를 확인하라

당신은 자신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인상을 요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인상을 요구하는가? 당신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상을 요구하는가? 아니면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욕망을 가지고 인상을 요구하는가?

2. 당신이 일하고 있는 직장을 고려하라

교회 사역이나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다른 직종에서 그들이 벌 수 있는 것보다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편집국장: 김재상.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가톨릭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2023학년도 가을학기 입학안내.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여기 그 귀한 소명자를 훈련시키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탁월함을 추구하는 신학교. 원서 교부 및 접수: 2023년 9월 1일(금) 오후 6시. 입학시험: 2023년 9월 2일(토) 오전 11시, 면접 오후 2시. 특전: 1)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2)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 3)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시학장서를 소장한 '토기장이 북카페(도서관)'가 있음.

### 탈 기독교 시대에 목회자..

(1면에서 계속)

“최초 대응자”라고 하면 보통 소방관, 응급구조사, 또는 수색 및 구조 요원을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목회자-신학자도 부서진 삶, 분열된 가족, 죽음, 절망의 전투가 벌어지는 치열한 참호 속에 있다. 그들은 윤리, 영성, 그리고 정치에 관한 논쟁의 최전선에서 있다.

교회의 성경 문맹은 목회자-신학자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위기이다. 교회는 예수님이 만든 사회이며, 목회자는 회중의 상상을 지배하는 이야기가 아버지가 성경을 통해 만물을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려(엡 1:10) 아들 안에서 이루시는 이야기가 되도록 만들 책임을 진다. 그렇게 함으로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고 화목하게 되도록 해야 한다(고후 5:17-19).

목회자-신학자는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삶의 긴박함과 성경 읽기의 주석적 도전에 응답한다. 그것은 다른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루신 새로운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실재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기

뻐하는 것이다.

지역 교회: 성경적 해독력과 거듭난 기독교를 위한 장소

지금은 절망할 때가 아니다. 교회를 재발명할 필요가 없지만 재발견해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신학을 포기할 때가 아니라 모든 생각과 모든 사회적 상상이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더 깊이 파고들 때이다. 지역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을 드러내기 위해서 갖춰야 할 성경 읽기 능력을 배양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을 때만 지역 교회는 세상의 희망으로 남을 수 있다. 더불어서 교회를 통해서 독서 습관을 기르고, 또 읽은 말씀이 선포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되는 현상이 되어야 한다. 목회자-신학자는 일정 부분에서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깨닫도록 돕는 사역을 감당한다. 즉, 그들이 기독교 문서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촉매제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이름이 비롯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배우는 곳은 지역 교회이다.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매력적으로 느껴지도록 만드는 것도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의 삶을 통해서이다. 그게 바로 탈 기독교 세계에서도 지역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의미이다. 탈 기독교 세계가 기독교를 재정의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일어나야 한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새로운 인류의 선두에 선 사람들을 부르시고, 모으고, 또 화해시키실 때 가시화된다. 당신은 바람처럼 움직이는 성령의 능력을 볼 수 있는가?

기독교 시대는 반드시 끝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마르쿠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탈 기독교 세계가 되었다고 해서 결코 기독교 이전 세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 세상은 이미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시 24:1).

###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임금 인상..

(2면에서 계속)

그러나 이러한 기독교 단체들도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임금을 제공할 수 있을 때도 있다. 지금 당신이 일하고 있는 근무지가 재정적으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현재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가? 아니면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으며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대우를 제공할 수 있는가?

#### 3. 당신의 직급을 평가하라

당신의 노동의 질과 조직에 기여하고 있는 바를 고려하여서 가능한 임금 인상을 평가하라. 일반적으로 조직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한 경력이 있다면 이는 당신의 가치를 더해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까지 조직이 운영되어온 과거의 역사와 노하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항상 성실하게 주어진 노동에 감당하였는가? 더 많은 책임을 부여받았는가?

#### 4. 한계를 정하라

모든 직업은 명확한 근로계약서를 필요로 한다. 근로계약서의 세부적인 내용에 변경이 있다면, 그에 맞추어서 당신의 임금에 대한 재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 임금 인상이 없이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당신이 지쳐서 쓰러지지 않도록 적절

한 한계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당신의 조직이나 기업이 적절한 보상이 없이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한다면 당신의 관리자에게 노동에 대한 기대를 적절한 수준으로 낮추어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

#### 5. 현실을 고려하라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반드시 기업에 임금 인상을 요구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당신의 자녀가 자라고 있으며, 당신은 더 큰 집을 구대하였으며, 자녀를 기독교 학교에 보내고 싶다고 생각해보자. 이에 따른 경제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서 더 많은 임금을 기업에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대신, 당신이 직장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라. 임금 인상은 당신이 더 많은 일,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의 삶에서 경제적인 필요의 변화가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이유라고 할 수는 없다.

#### 어떻게 요구할 것인가?

당신의 고용주에게 협상의 조건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는 말라. 또는 회사를 끈단하게 만드는 최후통첩과 같은 방식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 말라. 당신의 노동의 가치가 당신이 받아야 할 임금 인상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라.

당신의 임금 인상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주님께 하듯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라. 사실 우리는 우리가 받는 임금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의 노동은 임금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수단이다.

#### 하나님을 의지하라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가 하는 노동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평가받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위하여 주신 직업을 통하여서 임금을 받으면서 살아간다. 성경은 노동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받아야 한다 고 가르치지만, 동시에 우리의 필요를 항상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것을 가르친다.

이렇게 기도해보라. “하나님, 저의 필요를 모두 아시며, 제가 어떻게 일하는지 항상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와 제 가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저의 고용주 여러분의 임금을 올려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돌보시며 영광을 받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 시론

### 평화일꾼(Peace Ambassador)



은하곤 목사 (평화드림포럼 대표)

필자가 대표로 있는 ‘평화드림포럼’(Peace Dream Forum)에서 ‘한반도 평화통일과 북한선교’를 위한 ‘인재양성’(평화일꾼, Peace Ambassador)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국교회 젊은이들(청소년, 청년)을 위한 ‘한반도 평화교육교재’를 교사용, 학생용으로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 한반도평화통일은 남북한 뿐만이 아니라 주변 관계국들이 서로 작용하기에 5개국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일본어)로 번역하여 출간했다. ‘교회용’과 더불어 ‘일반용’도 출간했다. 5과로 구성하고 5명의 30대 전문 집필자들이 만나 하나의 일관된 맥락을 형성하느라 수없이 많은 신랄한 토론을 했고 이어 각자 집필 후 모두가 다시 모여 낱센 지적과 수정과 보완의 과정을 무려 1년여 기간을 거쳤다. 그리고 이렇게 마련된 최종원

고를 4명의 전문가들번역을 통해 5개국어 최종 번역본이 나와 합본(예: 한국어-영어, 한국어-중국어, 한국어-일본어, 한국어-러시아어)으로 출판했다. 지극히 어려운 작업들이었다. 워낙 이 분야가 척박하다보니 많은 격려를 받았고 정부와 민간기업체, 연구기관, 대학교와 지자체 도서실, 관계기관들에 보급하였으며 교보문고 등 일반 서점가에서도 잘 판매되고 있다. 매해마다 가을에는 2달동안 ‘평화드림아카데미’를 줌으로 개최하고 있다. 2021년 ‘평화드림아카데미 1기’는 8개 대학교의 열한분의 교수님들이 각기 자기의 전공분야에서 ‘평화로 통일’을 논했고 이를 ‘평화로 통일을 논하다’(1)을 발간하여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보급하였다. 이어 작년에는 남북 교류협력현장에서 오래동안 실무자로 수고를 아끼지 않은 현장사역자들을 초청해 ‘평화드림아카데미 2기’를 개최하였다. 수많은 고난 속에서 참 귀한 헌신 담긴 그분들의 경험담과 희생을 듣고 숙연해졌다. 내용들을 공개할 수 없기에 2기는 책자를 발간하지 못했다. 이어 올해는 10월에 ‘평화드림아카데미 3기’를 ‘국제평화포럼’으로 개최한다. 주제는 ‘분쟁지역에서의 평화’다. 세계의 분쟁지역, 즉 중국-대만-인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영국-아일랜드, 남한-북한 등등을 중심으로 ‘분쟁지역에서의 평화란 무엇인가? 그리고 실제로 분쟁지역에서 평화를 이끌어내고 진척시키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등을 각 분쟁지역의 전문가들에게 듣고 토의하는 시간들이다. 물론 3번째 평화드림아카데미가 끝나면 ‘평화로 통일을 논하다- 분쟁지역에서의 평화-(II)’가 발간될 것이다. 평화드림포럼은 평화를 드림-‘꿈꾸고’, 드림-‘하나님께 드리고’, 드림-‘세상에 드리우다’를 위해서 시작한 포럼이다. 주제는 ‘6.25를 평화의 날로 선포’다. ‘6.25를 분명히 기억하되, 6.25가 미래를 향해 나가는 한반도 한민족의 장애물이 되어서 안 된다.’는 취지다. 내일의 한민족(자녀세대들)들을 바라보며 ‘한반도 동반성장’을 꿈꾸자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작년에는 프레젠테이션서 한양상 전 총리를 모시고 ‘6.25를 평화의 날로 1주년 기념세미나’를 했고, 올해는 인재양성지원에서 새로운 시도를 했다. 한반도 평화대사(일꾼들)를 양육해 나가는 차원에서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평화드림 5만 리’를 계획하고 2023년 6월 25일 주일 밤에 출정식을 갖고 인천공항을 출발했다. 25명 모집에 120명이 신청하여 평균 5:1의 경쟁을 뚫고 최종 선발된 전국지역의 대학생들 25명과 6명의 스태프들이 ‘하나님의 평화’를 직접 체험하고자 5개국 10개 도시를 평화주제를 가지고 순례했다. 6명의 스태프들은 전원 자부담을 하였고 25명의 대학생들에게는 평화드림포럼에서 비용의 절반을 장학금(5만불)으로 지원하였다. 먼저 네델란드 헤이그를 방문하여 이준 열사 기념교회에서 ‘세계 열강 사이에서 조선의 평화’ 포럼을 개최했다. 이어 11일간의 일정을 ‘한반도의 평화를 지지한다’라는 현수막을 갖고 대형버스를 타고 이동했다. 하루를 달려 베를린에 도착하여 베를린광장에서 독일통일을 느끼며 2번째 ‘독일통일에 비취본 한반도의 평화’ 포럼을 개최하고 이어 과거 동독지역이었던 드레스덴을 거쳐 독일통일의 시발점이었던 라이프치히 니콜라이성당에서 ‘평화염원기도회’를 가졌다. 이어 폴란드 아우슈비치 수용소를 방문하여 ‘권력의 오용이 역사에 미치는 결과들’에 대한 강의와 토론을 하고, 유럽에서 제일 큰 광장인 폴란드 크라쿠프 광장에서 미리 연락하여 만나는 우크라이나 난민들과 ‘작은 평화음악회’를 개최하며 이때 준비해간 의약품들과 특히 전쟁트라우마를 겪는 어린이들을 치유하는 장난감과 물품 등등을 나눴다.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어’로 된 몇가지 노래들을 배워서 갔다. 우크라이나 찬양을 할 때마다 고향을 떠나 난민이 된 그들이 스멜스며 다가와 함께 눈물로 찬양하며 진한 감동을 나눴다. 마지막으로 유엔의 유럽오피스가 있는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방문했다. 12일 일정내내 가는 5개국 10개 도시마다 ‘평화 버스킹’과 ‘우리는 한반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지지한다’는 서명(1,000명)을 받았는데 이를 유엔 비엔나대 표부에 전달했고 귀국후 한국 정부(통일부, 외교부)에도 전달했다. 31명이 건강하게 12박 13일의 여정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 내년에는 5일간 한반도 DMZ 도보 종단, 후년에는 세계 분쟁지역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스태프들의 많은 희생과 헌신이 만들어낸 ‘평화 일꾼(Peace Ambassador) 양성 프로젝트’.

깊은 평화공감과 자각의 일정이었다. 이들 중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 일꾼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희망하고 기도한다. 제 시론 차례가 되어 한국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하며 글을 마친다. pastor\_eun@gmail.com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엔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체티 제작 아직도 어려우신가요?**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한번에 해결하세요!**

- Step 1: 디자인/견적문의
- Step 2: 주문하기
- Step 3: 시안확인/수정
- Step 4: 상품수령

어린이 단체티 부터 청장년 단체티까지 전 연령 단체티를 모두 한곳에서 주문 가능

**‘히즈핑거물에서 쉽고빠르게 제작!’**

**문의 환영!** 문의: 718-886-4400 / info@chpress.net

**Hisfinger** / Psalm 8:3

###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 예수를 전하자

솔로몬 왕 이후 유대민족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저버렸고,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였습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출입을 막았습니다. 성안

에 갇힌 사마리아 사람들은 양식이 떨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성문 밖의 나병 환자들도 양식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들이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의역하면, "만일 우리가 성안에 들어가도, 굶어 죽을 것이고, 이곳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굶어 죽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 앉아서 죽느니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그

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고,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다. (왕하 7:4)

이런 생각을 한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아람 군대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람 군대 진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 두려움을 주셔서 저들이 이미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나병환자들은 텅 빈 아람 진영에서 배불리 먹고, 금은보화와 의복까지 챙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람 군대는 도망쳤고, 이곳에 양식이 풍족하다는 좋은 소식을 자기들만 알고, 성안에서 굶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자신들이 큰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양심에 가책 받은 그들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벌이 임할 것이다.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라고 하면서 성

안으로 가서 그 안에서 굶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함으로 죽어가던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빛진 마음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 거룩한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빛진 자라."(롬 1:14)

그는 자신은 나라, 민족, 성별, 직업, 종교성, 남녀노소를 막론한 모든 사람에게 '복음에 빛진 자'이며, 따라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복음에 빛진 자'입니다. 우

리도 나병 환자들처럼, 거저 받은 좋은 소식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들을 살려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거저 받은 복음을 세상에 전할 '빛'(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체하면 할수록 '성안에 있는 사람들 (죄와 죽음이란 성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지체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영생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한 사람을 아십니까?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라 고백한 사도 바울의 심정을 아

니까?  
그렇다면 이번 여름에도 예수님을 전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더 지체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감당합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영생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빛진 자의 심정으로 거저 받은 복음을 거저 나누시다. 누군가 "전도는 빵을 얻은 거지가 거지에게 어디서 빵을 구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단 12:3).

### 푸/른/초/장

박성호 목사  
(임마누엘장로교회 담임)



2023년 아버지날이었던 지난 6월18일 아침, 북대서양 한쪽에서 실종된 잠수정 소식에 전 세계 언론이 관심 어린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4일만인 22일, 잠수정 '타이탄'의 잔해가 발견되었다는 해안경비대의 발표가 있기까지 그야말로 흥수처럼 많은 보도 경쟁으로 전 세계인의 이목이 며칠간 이 사건에 온통 집중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특종으로 내보낼 만한 여러 흥미진진한 요소들이 이 사건에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1912년에 침몰되어 북대서양 심해에 가라앉은 유명 여객선 '타이타닉'의 잔해를 탐사하는 오션게이트 회사가 주관한 아주 고액의 비용이 드는 특별한 미션이었다는 점, 그리고 탐사에 참여했던 다섯 명의 탑승자를 역시 역만장자를 비롯한 범상치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또한, 직접 이 탐사를 주관했던 스타턴 러시 최고경영자(CEO) 역시 이번 사고로 결국 사망하고 말았으며 이는 곧 오션게이트 회사의 몰락을 의미했기 때문에 상징하는 바가 컸습니다.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묵상하게 되고, 끝없는 도전 정신으로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 나가는 인간의 탐구 정신에 경이로운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권력과 재물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멈추지 못하는 이런 도전 정신에 유명한 달리안 분들에게 애도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

로 6월 23일 뉴욕타임스에 올라온 리처드 페레스-페나라는 기사가 쓴 기사를 읽다가 갑자기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기자의 논지는 이 흥미진진한 잠수정

민족과 종족들을 바라보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같은 마음으로 도전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미 복음을 접하고 그 안에서 많은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속한 환경에 계신 분들과, 지금도 여전히 전혀 복음을 접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다양한 문화적, 종교적 장벽에 갇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관심은 바로 그곳을 향해 있지 않을까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향해 길을 나서는 목장의 심

계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교회의 에너지와 기도와 선교가 어느 곳을 향해야 하는지 우리는 다시 한 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은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길도 머무는 곳에 그들의 눈길도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그들의 손길도 닿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습관처럼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되어 성전에 오르던 베드로와 요한도 그리했을까요? 그날따라 '미문'이라는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고

있을 장애인 한 사람을 유독 관심 있게 보게 됩니다. 3절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화려한 바베큐 파티를 벌이고 있는 장애인 한 사람을 유독 관심 있게 보게 됩니다. 3절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화려한 바베큐 파티를 벌이고 있는 장애인 한 사람을 유독 관심 있게 보게 됩니다. 3절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 “주목하여 이르되”

### 사도행전 3:1-10

성령 안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은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된다.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그들의 눈길도 머물게 된다.  
하나님의 손길 닿는 곳에 그들의 손길도 닿게 된다.

과 다섯 명의 유명 탑승자들을 향한 관심은 그토록 뜨거웠던 반면에, 불과 사건이 있기 수주일 전에 지중해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태운 어선이

그러면서 저는 이 사건을 선교적인 시각으로 뒤돌아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80억에 가까운 이 지구라는 별에 살아가는 수많은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맹목한 믿음으로 마시지 못해 죽어가는 분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단기선교로 세계 곳곳에 방문해 보면 그런 현실이 냉혹하

의미합니다. 성령 안에 살아가는 이들은,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도 살아가는 이들은 하나님 마음 두신 곳에 그들의 마음을 쏟게 됩니다. 하

sunghopark@epcsj.org

### 온라인에서 잘못된 정보...

(1면에서 계속)

그는 1만 5,000 비트코인 획득을 위한 콘테스트에 나를 참가시키겠다고 제안했다. 거기에 참가하려면 머스크 외 목록에 있는 다른 다섯 명에게 트위터 팔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다음 날 내 트위터 피드는 나와 엘론에게 트윗을 날린, 목록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게시물로 넘쳤다.

불행하게도 그 누구도 아무 것도 얻지 못했다. 까짜 트위터 계정이었다. 경품 링크는 피싱 사기였다. 일주일 동안 나는 한 건의 잘못된 정보를 접했고, 두 건의 허위 정보를 가까스로 피했다. 내가 느낀 자부심이 아니라,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거짓이 넘치는지에 대한 자각이었다.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이런 거짓

정보가 넘친다. 소셜미디어가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아홉 번째 계명(출 20:16)을 아예 지워버리고 있다. 거짓이 뿌리를 내리면 사회적 신뢰가 쇠퇴한다. "무엇이 진짜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다들 이렇게 말하게 되는 세상에서는 친구가 친구를 믿을 수 없게 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떼가 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마 10:16). 소셜 인터넷 시대에 이것은 냉소주의의 유혹을 거부하는 동시에 거짓이 퍼지는 방식에 대해 지혜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소셜미디어에는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와 허위 정보(disinformation)라는 두 가지 종류의 거짓이 만연한다.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저항을 향한 첫 번째 단계이다.

### 잘못된 정보 이해하기

잘못된 정보는 (1) 악의 없이 공유되는 의도하지 않은 거짓과 (2) 실제 사건을 탈맥락화하거나 기만적으로 재구성하여 생성된 거짓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의도하지 않은 잘못된 정보: 종종 의도하지 않은 거짓말에는 9/11 테러 당시 93편에 탑승한 토드 비머(Todd Beamer)의 조 작된 전화 통화 녹취록처럼 마음 혼란한 이야기도 포함된다. 녹취록 "대본"은 확실히 유통되었고, 그렇기에 이 재구성된 대화의 스크린샷이 지난 9월 기독교 트위터에서 입소문을 탔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엄청난 리트윗 수는 나를 포함한 대부분 사람들

이 그것이 진짜라는 데에 확신하도록 했다.

### 그게 사실이 아닌데도 그럼 왜 그렇게 퍼졌을까?

모든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은 성공적인 게시물(댓글, 좋아요, 또는 공유와 같이 참여를 유도하는 게시물)을 찾아내고,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이를 게시하도록 설계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런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플랫폼에 더 오래 머무르게 하여 더 많은 광고 수익을 내도록 한다. 그러나 감정을 사로잡는 게시물이수록 비즈니스에 도움이 된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게 뭐가 중요한가?

탈맥락화된 잘못된 정보: 당파적 뉴스 사이트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이야기(narrative)에 힘을 실기 위해 핵

심 맥락을 제거한 인용문이나 비디오 클립을 게시하곤 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분노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분노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며, 결과적으로 알고리즘이 작동하면서 그 점을 더 강조한다. 우리는 적에 대해서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것을 좋아한다. 따라서 적에 관해서만은 표면적으로 아무리 터무니없는 이야기나 인용문을 만나더라도 더 넓은 맥락에서 진실 여부를 조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 허위 정보 이해하기

허위 정보는 분열, 불신, 증오를 조장할 목적으로 사악한 주동자들(agents)이 조작한 거짓 이야기, 사진, 인포그래픽, 또는 인용문이다. 중국, 이란, 러시아가 미국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바이러스성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데 필요한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조작에 능숙하다는 게 이미 입증되었다.

외국에서 만들어진 이런 사례는 아주 많다. 이슬람국가(ISIS)가 루이지애나에서 화학 폭발을 일으키고, 오하이오에서 치명적인 인이 누출되고, 우크라이나 전투기가 상엄용 항공기를 격추하고, 알래스카가 연방 탈퇴를 청원하고, 2017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임박한 제3차 세계 대전 발발에 대한 경고를 하다 등등.

대부분 미국인은 2016년 선거 전까지만 해도 이런 디지털 허위 정보 캠페인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 당시 러시아 요원이 두 후보에 대해 넘치는 거짓 이야기를 게시했으며, 양측 후보가 다 그런 거짓 정보를 사실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다.

(9면으로 계속)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출애굽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땅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간 것인데,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육에 속한 저주의 땅을 떠나, 신령한 삶으로 나아간 것이다. 고단하고 희망 없는 세상에 묶인 바로의 무거운 쇠사슬을 벗어내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믿음, 소망, 구원을 향해 나아간 특별한 은혜의 사건이다.

**교회, 출애굽 성도의 모임**

그러나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를 대하는 모세의 말을 통해 나타나 있듯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던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간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자의 걸음이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세상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출애굽

애굽에서도 살아갈 수는 있다. 그러나 애굽에서의 삶은 죄인으로 사망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삶에는 절망, 근심, 다툼, 괴로움만이 가득할 뿐이다. 영생이 없기 때문이다. 영생이 없으므로,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게 된다. 육체의 생명만을 생각하니 물질적이 된다. 조금하고 답답하고 허무하며, 살았으며 죽음에 이르는 삶의 모습이 된다.

그러나 출애굽한 성도의 삶은 생명과 꿈이 있는 삶이다. 영생에 대한 소망과 사랑이 있는, 생기 넘치는 삶이다. 교회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요한 일서 5장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다. 아들이 있어야 생명이 있고,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은 주님을 향한, 그의 아들을 향한 탈출이라

아픔을 솔로 달래다가 술이 그들의 꿈을 삼켜버린 것이다. 그러나, 탈북자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저들가운데도 복한을 넘어 남한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와 주님의 교회로 피한 이들에게는 영생의 복과 삶의 형통이 주어진 것을 본다.

세상, 어디에 행복이 있을까? 행복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사는 것이다.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가? 처음부터 주님을 만날 수는 없다. 그때, 그는 그의 발걸음을 주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로 옮기면 살아나는 역사를 맛보게 된다. 오직 주의 성전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는 생명이 없다. 지식과 과학에도 생명이 없다. 어떤 정치지도자나 대통령도 생명을 줄 수 없다.

**생명의 밝은 빛, 교회**

을 받았다. 보내는 이들에게도 생명의 밝은 빛 가운데 소망을 품는 모습이였다.

**참된 행복, 주와 그의 교회에**

하나님을 떠난 현대인들의 삶에 행복이 없다. 잘 먹어도 기쁨이 없고, 좋은 옷을 입어도 잠깐의 즐거움은 있어도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없다. 왜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가? 마음이 답답하고, 속상하고 괴로운 심정을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기쁨이 없기 때문이다. 이유는 분명하다. 저들 안에 생명이 없으므로 나타난 자연스런 현상이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해야 한다. 생명의 주님 품에 안기면, 밤도 생명의 밝이 되고, 웃도 생명의 웃이 되고, 잠도 생명의 잠이 되는 것이다. 밝은 밤이어서 좋고, 낮은 낮이어서 좋다. 주 안에 있을 때, 모든 생활이 행복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 749-0577  
TLspc0316@gmail.com

**Q:** 저는 한 지역에 있는 교회를 맡아 10년째 목회하는 목회자입니다. 교회가 생각보다 잘 성장하지 않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남모르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만의 고민 일까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받는 스트레스나 상처가 무엇인지요? 알고 싶습니다.

- 사우스베이에서 L 목사

**“교회가 정체되거나 성장하지 않을 때”**

**“설교해도 교인들이 변화되지 않을 때”**

**A:** 좋은 질문입니다. 상담자인 저 역시 이 미주 캘리포니아에서 41년간 목회하며 목회자만이 겪는 스트레스를 경험했기에 공감합니다. 목회자 역시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각자가 강도와 빈도, 유형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목회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목회를 합니다. 소위 대형교회, 중형교회 혹은 소형교회 목회자들 대부분이 목회에서 그들을 괴롭히는 압박적 사고와 행동에 시달립니다. 특히 주변의 어느 교회가 부흥을 하면 자신의 교회는 왜 부흥하지 않는지 심한 열등감과 죄책감을 느끼면서 목회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목회자가 가장 많이 받는 스트레스를 몇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가 정체되거나 성장하지 않을 때 목회자는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목회자들의 고민입니다. 청빙을 받아 교회를 목회하면 교인들이나 목회자나 나름대로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기를 꿈꾸고 희망하는 데 수년이 지나도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답보상태에 있으면 목회자는 열등감과 자괴감에 빠집니다. 자신의 무능을 질책하며 괴로워합니다. 총신에서 목회 상담학을 가르쳤던 이관직 교수의 '목회 심리학'이란 책을 읽어보면 그의 박사 논문에서 미국에서 한인 이민 교회 목회자들이 겪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 '교회성장의 정체나 감퇴'였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중대형교회보다 소형교회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목회 현실인데, 목회자의 의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성공하는 목회보다 행복한 목회를 추구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P.9 9-101) 오늘날 외적 성장에 치중하는 성장 세미나들의 강사는 주로 현상학적인 접근을 통해 성과를 부풀려 말하기 쉬운데 이것은 대안을 찾고자 하는 소형교회 목회자들로 허상을 쫓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소형교회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종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요 칭찬과 인정을 받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의료 선교사였던 서서평 선교사의 책상에 붙었던 슬로건처럼 '성공이 아닌 섬김'(not success but service)목회를 해야 합니다. 둘째, 아무리 설교해도 교인들이 변화되지 않을 때 목회자는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목회자의 가장 크고 중요한 사역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골 1:28)입니다. 목회자가 설교준비와 가르침을 위해 쏟는 시간과 열정은 엄청납니다. 한 설교를 위해 수십 시간을 투자하고 책을 읽고 좋은 꼴로 성도들에게 먹이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합니다. 주일 오후에 설교를 마치고 과도한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거의 탈진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나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거나 설교를 들어도 교인들의 삶이 도무지 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될 때 목회자는 자괴감과 동시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목회의 보람은 교회가 크나 작으나 성도들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신앙이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열매가 있을 때 목회자는 큰 보람과 힘을 얻습니다. 엘리야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는 큰 역사를 이루었음에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말을 듣고 낙심하여 아라비아로 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했습니다. 목회자는 교인들의 반응 여하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세상에서 주의 교회로 출애굽**

**-교회, 참된 생명과 기쁨, 회복-**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애굽 같은 세상의 끈적끈적한 유혹과 익숙한 삶에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겠노라는 결단과 순종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주님 앞에 새로운 방향,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한결 같이 주의 말씀과 성령의 앞선 인도에 매 순간 겸손한 순종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 백성됨의 영광을 보는 것이 신앙이요, 교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에서 출애굽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와 함께 하는 삶이어야 한다. 신앙의 동지들과 교회를 이루고, 교회와 함께 살아가다가, 교회와 함께 끝나는 삶이다. 세상으로부터 교회에 나아옴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고 불러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며 영원한 분향 천국을 향하여 충성하다가, 마침내 교회 안에서 그 생애를 마침으로 천국에 이르기 때문이다.

**주의 전, 교회를 향한 삶**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삶의 한가운데 항상 교회가 있다. 또 있어야 한다. 이것이 정상이다. 신앙은 방향이다. 참된 신앙인은 항상 주님의 전인 교회를 향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어떤 분은 교회가 은혜로우어서 나온다고 한다. 그러나 교회는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나오지 않아도 되는 곳이 아니다. 재미나 친분관계 때문에 나오는 곳도 아니다. 교회는 구원을 받으려고 나오는 곳이다.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으려고 나오는 곳이다. 교회는 이미 생명과 구원, 천국과 축복을 바라보는 자들이 나오는 곳이다. 한마디로,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는 것이다.



고도 할 수 있다. 세상으로부터 주님께 나아오면 살 수 있고, 교회에 나아오면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고의 행복, 교회로 피함**

아프카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자, 탈출하려고 철조망을 기어오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살기위해 세계 곳곳으로 흩어 보내졌다. 그러나 그 삶이 그 삶이라는 것이다. 그들 중에는 미국으로 피한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세상에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하는 미국이라고 해서 그 삶이 만족하고 온전했을까?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한다. 미국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피해야 되고, 주님께로 탈출해야 되고, 주의 교회로 피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생명과 축복과 형통과 거리가 먼 삶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북한 사람들이 남쪽으로 탈북을 했는데, 많은 이들이 알뜰 중독자가 되었다고 한다. 남한이 낙원인줄 알았는데, 고향 떠난

말기암 진단을 받고 나면, 죽음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한다.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는다. 밥맛도 없고, 사람을 만나지는 기쁨도 없다. 아름다운 것을 보며, 더 허무해 하고 불평과 한숨을 내린다. 이유가 무엇인가?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일한 병을 가진 환자라도, 주님의 생명이 저들 안에 있는 이들은 삶의 자세와 태도가 완전히 다른 것을 본다. 예수의 생명의 빛이 암병의 어두움을 이겨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교회에 암으로 투병 중 소천하신 집사님이 계셨다. 온 가족이 남편이자 아버지인 집사님의 마지막을 주의 종의 손에 맡기면서, 토네이도가 덮쳐서 전기가 들어오지 못하는 중에도, 주의 전에서 천국환송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다. 아버지 집으로 피하고, 아버지 집에서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고자 하는 아름다운 신앙가족의 모습이였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의 빛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모두에게 은혜가 되었고, 영광스런 생명의 빛 가운데 천국으로 인도함

하고, 모든 만남이 즐거우며,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생명의 주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침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삶에는 형통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인가? 주님의 몸된 교회이다. 몸을 움켜쥐고 교회 가운데 나와야 한다. 주님의 교회에 나오면, 생명이 역사함을 느끼게 된다. 온갖 죄악과 저주아래 있던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삶이 돌아온다.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삶이 되고 빛이 자라고 열매가 맺히며, 열매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생명과 축복의 터전인 교회를 떠나서는 안된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한때 불과하다. 반드시 주의 몸된 교회앞으로 나와야 한다.

**교회가 살면 다 산다.**

구역의 아픔을 보라, 하나님을 떠나 잘 사는 것 같았지만 형통이 아니었다. 아픔이 살던 세계

은 살기 좋아보였지만, 영적으로 불통한 생활이었다. 하나님의 약속도, 기도도 없었던 곳이다. 결국, 큰 시험과 환란이 찾아왔다. 험악한 세월이었다. 성공한 듯 했으나, 성공했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벨벳로 올라갔을 때 살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아버지의 집으로 피하지 않고, 아버지를 예배하지 않고서 인생의 살길은 불가능하다. 교회생활이 온전하고 복될 때, 그 복을 받고 누리며 형통하여진다. 주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주의 교회로 나와야 한다. 삶의 곤고한 것들로부터 출애굽하여, 주의 전으로 피해야 한다. 주의 전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부지런히 말씀을 먹을 때, 만복의 근원이신 주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성전에 나와 구하는 대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 주님이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이다.  
davidnjeon@yahoo.com

# 목회와 선교



여승훈 목사 (남가주보배로운교회)

## “상대주의의 위장술을 뛰어넘으십시오”

오늘날 상대주의가 사람들의 사고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상대주의는 경험과 문화 등 여러 가지 조건의 차이에 따라서 가치 판단 또는 진실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상입니다. 모든 가치의 절대적 타당성을 부인하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상대주의가 지향하는 중요

한 가치는 “평화”입니다. 무엇이라도 절대성을 가지고 독주하면 평화가 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기 위해서 절대성을 주장하지 말고 서로 간의 경험과 문화와 조건에 따라서 가치 판단과 진실의 기준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상대주의를 통한 평화는 거짓 평화의 위장술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평화는 절대자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데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절대자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고는 참 평화를 위하여 반드시 해결 해야 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사람들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죄의 특성은 “분리”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



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그런 죄를 안은 채 걸음으로 서로의 경험과 문화를 존중해 줌으로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수류탄을 가슴에 안은 채 걸음으로 미소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절대자와 절대 진리를 포기하고 상대주의를 받아들여서 모든 종교와 가르침을 존중할 결과 이전보다 사람들의 죄는 더욱

과감해졌고, 이전보다 사람들의 분열은 더욱 잦아졌고, 계층 간의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예수님이 스스로 선언한 “나는 길이요(I am The Truth)”라는 말씀을 마음깊이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것은 구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문제에 있어서도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개인들이 반드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이룰 때에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참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경험과 문화와 조건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헤쳐 모여야 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향한 바른 방향은 상대주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입니다.

newsong6364@gmail.com

#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 미 교수 “성별은 X·Y염색체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르쳤다가 해고

미국 대학에서 20년 넘게 생물학을 가르쳐 온 교수가 “성별은 X·Y 염색체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르쳤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생물학적 사실을 언급하는 것조차 동성애자를 향한 차별·혐오 발언으로 간주한 것이다. 국내 전문가들은 현재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차별법)이 제정될 경우 한국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우려했다.



DR. JOHNSON VARKEY BIOLOGY PROFESSOR

미 기독교 매체 CBN뉴스는 최근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세인트필립대에서 인간생물학을 가르쳐 온 존슨 바키 교수가 적절한 항변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26일 CBN뉴스에 따르면 바키 교수는 지난해 11월 강의에서 “생물학적 사실인 X와 Y염색체에 의해 성별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당시 이를 들은 학생 4명은 항의하듯 강의실을 빠져나갔고 이후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키 교수는 지난 1월 학교 부총장으로 부터 “윤리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란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 바키 교수는 이로부터 2주 후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 통지서에는 “종교적 설교,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개인에 대한 차별적 발언, 낙태 반대 및 여성 혐오적 발언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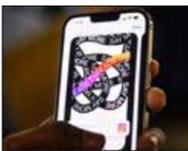
바키 교수는 “2003년부터 1500명 넘는 학생에게 인간의 생식 기능에 대해 똑같은 내용을 가르쳐 왔는데 부정적 반응을 경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며 “학교 측에서는 내게 항변의 기회나 소통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바키 교수를 변호하는 케이샤 러셀 변호사는 “바키 교수의 발언은 과학과 도덕 윤리, 학문적 정확성을 기초로 했다”며 학교 측에 복직을 요구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1964년 수정헌법 제1조, 민권법, 텍사스 종교자유복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 조배숙 변호사는 “과학을 근거로 한 생물학적 성이 아닌 일부가 만들어진 사회적 성인 ‘젠더’를 무조건 받아들이게 만든 것”이라며 “한마디로 과학을 정치가 왜곡한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차별법이 통과된다면 이번 사례처럼 과학적 사실조차 쉽게 얘기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학문의 자유,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억압돼 결국 민주주의를 위협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 인기몰이 확인?...스레드·인스타·페북, 1시간 넘게 마비

최근 인기몰이 중인 스레드를 비롯해 인스타,

페북 등 메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1시간 넘게 마비되는 일이 발생했다. 1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페이스북 북 모회사 메타의 SNS들이 이날 일제히 마비된 뒤 1시간 뒤 복구됐다.



주요 앱과 웹사이트 접속 장애 상황을 추적하는 ‘다운디터’도 한국시간으로 11일 오전 6시 30분쯤 인스타그램, 스레드, 페이스북, 왓츠앱 등 메타의 SNS가 서비스 장애를 일으켰다는 보고가 대거 접수됐다고 밝혔다. 다운디터에 들어온 인스타그램 장애 신고 건수는 오전 6시 53분에 1만 6370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1000건 아래로 줄었으나, 오전 7시 38분쯤 다시 230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됐고 오전 8시가 되어서야 잠잠해졌다.

페이스북 장애 신고도 오전 6시 53분쯤 9075건까지 늘었다. 왓츠앱 오류 신고는 오전 6시 49분쯤 2263건, 스레드 오류 신고는 오전 6시 57분쯤 445건 접수됐다. 사용자들은 다운디터에 웹사이트에 “(인스타그램 내) 모든 게시물이 비어 있고 프로필 사진도 보이지 않는다” (“스레드는) 약 1시간 전까지 잘 작동했는데 지금은 앱을 열면 바로 닫힌다” 등 댓글을 남기며 문제 상황을 공유했다. 로이터는 메타 측이 이번 접속 장애와 관련해 응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메타가 지난 5일 출시한 텍스트 기반 앱 ‘스레드’는 닷새 만에 가입자 수 1억 명을 돌파하며 초기 흥행에 성공했다. 최근 스레드가 큰 인기를 얻으면서 SNS계의 터줏대감이었던 트위터를 상대할 강력한 대항마가 될 거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 스웨덴, 나토 32번째 회원국 된다... 북유럽 안보 지형 격변 예고

스웨덴의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반대해온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비준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스웨덴이 나토의 32번째 회원국이 되는 것이 유력해졌다. 이는 나토와 러시아가 직접 대치하는 공간이 늘어남에 의미에서 북유럽 안보 지형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서방의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엔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10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에르도안 대통령,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스웨덴 가입 비준안을 튀르키예 의회에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진행

하게 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스웨덴과 튀르키예는 테러리즘에 맞서 양자 간 협력을 계속하고 스웨덴은 튀르키예의 유럽연합(EU) 가입에 도움을 주며 나토는 새로운 ‘대테러 특별조정관’을 설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냉전 기간 안보정책과 국가 정체성의 핵심으로 중립국 위치를 지켜왔다. 그러나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 위협이 커지면서 5월 나토 가입을 함께 신청했다. 핀란드는 기존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를 받아 지난 4월 나토 31번째 회원국이 됐다. 그러나 스웨덴의 경우 튀르키예의 반대로 가입하지 못하고 있었다. 튀르키예는 스웨덴이 소수민족인 쿠르드족을 두둔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헝가리도 스웨덴의 가입에 반대해 왔지만 헝가리 관료들은 그간 튀르키예가 동의하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라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방향 선회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몰립 교섭을 통해 미 F-16 전투기 구매, 튀르키예의 EU 가입 여부 논의 등 원하던 성과를 얻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11일 에르도안 대통령과 별도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빌뉴스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신속한 비준을 위해 스웨덴의 나토 가입 의정서를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약속 등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스웨덴의 가입으로 나토 회원국 영토는 발트해를 가로질러 북유럽까지 확장하게 된다. 나토는 스웨덴이 보유한 전투기·탱크 수백대, 군인 2만여명 등 상당한 군사력도 확보하게 된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완료하는 것은 이 중요한 시기에 모든 나토 동맹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역사적인 단계”라면서 “그것은 우리 모두를 더 강하고 안전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개막... ‘미얀마 사태’ 해결인 주목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외교장관회의가 1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나흘 일정으로 시작했다. 각국 외교 실무 책임자들은 이 자리에서 장기화하는 미얀마 내전과 아세안 국가들이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 등을 논의한다.



아세안 사무국은 오는 14일까지 아세안 외교장관회의를 시작으로 아세안 파트너국 외교장관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미국 일본 러시아 인도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주요국 외교장관, 미얀마를 제외한 아세안 9개국 외교장관이 참석했다.

아세안 차원에서 교착된 미얀마 사태의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세안의 기본 원칙은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민주주의, 독재, 군주제 등 다양한 정치 형태

의 국가들이 모여 있어 서로의 정체성을 인정하지는 취지다. 이 탓에 10개 회원국이 국경 넘어 발생하는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미얀마 군정의 시위대 유혈 진압 사태가 장기화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아세안은 2021년 4월 미얀마 군정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 사령관이 참석한 특별정상회의에서 미얀마 내 폭력 중단 등 5개 항에 합의했다. 하지만 군정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에 단호한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 선 안쪽 90%가 자국 영해라고 주장한다. 회의 뒤 발표할 공동성명에는 “분쟁을 고조시키거나 평화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자제하라”는 메시지가 담긴 전망이다.

## 불 타는 지구...유럽서 ‘폭염’으로 6만명이 죽었다

지난해 여름 유럽 전역을 덮친 기록적인 폭염으로 6만1000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세계 보건연구소(ISGLOBAL) 호안 발레스테르 박사가 이끄는 국제연구팀은 11일 과학저널 ‘네이처 메디신(Nature Medicine)’에서 지난해 5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유럽 내 사망자들의 사인을 분석한 결과, 6만1672명이 폭염으로 인한 열 때문에 숨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름은 유럽에서 역사상 가장 더웠던 여름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더위로 인한 사망자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한 연구는 없었다. 특히 극단적인 폭염 현상은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고령층 등 고위험 인구에서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팀은 2015~2022년 유럽 35개국 인구 5억4300만 명에서 발생한 사망자 4518만4044명의 사인과 기온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를 추정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5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폭염으로 인한 열 때문에 숨진 사람은 모두 6만1672명으로 분석됐다. 특히 폭염이 심했던 7월 11일부터 8월 14일 사이에는 사망자가 3만8881명에 달했다.

폭염 사망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이탈리아(1만8010명)였다. 다음은 스페인(1만1324명), 독일(8173명), 프랑스(4807명), 영국(3469명), 그리스(3092명), 루마니아(2455명) 순이었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여성이 남성보다 63%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폭염으로 조기 사망 여성은 3만5406명(100만명당 145명)으로 추산됐고, 남성은 2만1667명(100만명당 93명)으로 추정됐다.

발레스테르 박사는 “작년 여름 유럽의 기온은 이전 수년간 기온 변화에 따라 예측할 수 있는 것이었고 지난 10년간 가속화된 온난화의 결과라는 점에서 예외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연구 결과는 유럽의 폭염 감시 플랫폼, 예방 계획, 장기 적응 전략 등이 충분치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2. 성례

2) 성찬 : 성찬에 관한 성경 해석에는 다양하다.

a) 화체설 (transubstantiation): 로마 카톨릭교회의 주장이다.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really, truly)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주장한다. 떡과 포도주의 속성들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그 본질(substance)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한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것이 내 몸이니라"(마 26:26)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주님의 이 말씀은 (1) 은유로 해석해야 한다. (2) 그리고 물질의 본질과 속성을 구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반적인 자연법칙을 위반한다. (3) 또한 그들은 성찬을 그리스도의 속죄제의 중복, 반복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은 단회적이다. 단번에 (once for all) 온전하다 성취하셨다. 성찬은 하나님을 위한 제사나 아니라 신자들을 위한 영적인 양식이다. 이스라엘이 출애굽과 홍해를 건넌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어야 했고, 반석에서 솟아난 물을 마셔야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인들과 구원받고 난후에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다. 영적인 음식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요 6:55-56).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길을 열고, 성찬은 그 열어 놓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힘을 공급한다.

b) 공재설 (consubstantiation): 루터파는 예수님의 본성에는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신성의 무소부재(無所不在) 속성에 따라 예수님의 인성도 편재(遍在)하신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몸이 (real body of Christ) 잔과 떡의 요소안에, 밀에 그리고 함께 임재하신다 주장한다 (the body and blood of Christ are present to the communicant "in, with, and under" the elements of bread and wine).

화체설과 차이는 빵과 포도주가 주님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 성찬의 요소들 (빵, 포도주) 안에, 함께, 그리고 밀에 임재한다는 주장이다. 공재설의 문제는 (1) 루터파가 카톨릭의 입장인 "성찬 그 자체가 역사한다 (ex opere operato)" 는 성례주의를 비판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성찬을 그 자체가 역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견해가 우세하다. (2) 루터파는 예수님의 양성 (신성과 인성)의 "속성 교류설" (communicatio idiomatum) 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성에 속하는 주님의 몸과 피가 신성과 같

이 온 세상 어디에나 편재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다. 주님의 신성만 편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도 신성과 같이 편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성찬의 요소들인 빵과 포도주 "안에, 함께, 그리고 아래" (in, with and under)에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혁주의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후에도 신성은 신성이고, 인성은 인성이다. 즉, 신성에 속한 성질과 인성의 속한 성질이 혼합되거나 합하여 제 3의 성질을 구성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개혁주의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미이다. 이 주장은 네스토리우스주의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며, 칼케톤 신조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성의 한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그리스도의 인성을 신성을 생각하듯이 생각해서도 안된다. 성찬과 관련해서 말하며, 그리스도의 신성은 항상 무소부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spiritual presence)이다.

그리스도께서 승천 이후 재림 때까지 그리스도의 인성은 그가 승천하여

(remembrance) 이라는 말이다. 기념은 단순한 행사일 수 있지만, 기념은 우리의 인식에서 잊어 버리지 않게 늘 기억하고 생각하기를 힘쓰는 일이다.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는 예식이 성찬식이다. (3)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전파하는 일이다. 11:26,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X. 종말론 (1)

"종말론" (Eschatology) 이란 영어 단어는 헬라어의 두 단어(eschatos와

통해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구약의 종말론적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와 "새 언약"의 개념을 통해서도 계시된다. 특히 예레미야는 유대 백성들이 우상숭배와 범죄들을 행함으로써 그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주로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였지만, 그러나 동시에 장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새 언약 (New Covenant)을 맺을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레미야 31:31).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성취된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눅 22:20).

구약에 예언된 종말론적 사상 가운데 하나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이것은 구약의 다윗의 왕조의 회복이 아니라, 신약에 나타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것을 예언한다. (아모스 9:11-12)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점으로 얻게 하리라."

"무너진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이미 멸망한 다윗의 왕조가 바벨론 포로의 석방과 귀환으로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의 왕조가 회복된다는 예언이다. 이 예언의 성취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야고보가 확증한다. (행 15:15-17)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다니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예루살렘 공의회 의 의장인 야고보는 15절에서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다" 선언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사도들이 이방인 가운데서 행한 선교 활동에 대해 말했고,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계시하신 내용을 요약하여 아모스 9:11-12을 인용했다. 신약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영적인 다윗의 왕조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인다는 것을 설명한다.

아모스 9:12절의 "에돔의 남은 자"는 다윗의 아들의 구속적 왕권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under the redemptive kingship of David's son). 에돔 (모든 민족)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게 됨으로써 큰 유익을 얻을 것이다. (시 2:8). 행 15장에서 야고보는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이방인들을 교회에 포함시킨 일에 적용한다. "에돔의 남은 자"는 열방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다 (the redeemed from all nations).

KHL0206@gmail.com



평신도를 위한 조직신학(25)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원로)

은 혼합과 혼동됨 없이, 그리고 분별과 분리 없이 한 인격 안에 있다고 정의했던 칼케톤 신조 (Chalcedonian definition)에 충실하다. (칼케톤 신조: "주님이시요, 독생하신 자는, 양성(兩性)에 있어서 혼동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고, 분리되지 않음을 인정받으며, 성품의 구별이 연합으로 인해 결코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각 성품의 특성이 보존되고, 하나의 인격과 하나의 실재로 작용한다.")

(Only-begotten, to be acknowledged in two natures, without confusion, without change, without division, without separation; the distinction of natures being by no means taken away by the union, but rather the property of each nature being preserved, and concurring in one person and one subsistence, not parted or divided into two persons, but one and the same Son, and only begotten, God the Word, the Lord Jesus Christ.)

개혁주의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의 인성의 한계 내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인성의 밖에서도(extra humanum) 존재하며 역사한다고 주장한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지상 생활의 기간에도 성자의 신성은 그의 인성의 한계 내에만 갇혀 있던 것이 아니라, 그 인성과 함께 하시면서도 동시에 인성 밖에서도 존재하며 작용하고 계셔서 그가 창세 때부터 하고 계셨던 온 세상을 총만히 채우시며, 불드시며,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계속하고 계셨다"라고 주장한다. 즉, 그리스도는 이 지상에 계실 때에도 그의 신성으로 계속 우주적 통치 사역을 하셨다는 의

오르신 하늘(heaven)에 계신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잘 나타난다.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행 3:21). 그러므로 루터파가 주장하는 공재설은 성경적이라고 할 수 없다.

c) 기념설 (Memorialism): 찰스 리는 성찬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단지 기념하는 의식으로 생각한다.

d) 영적 임재설 (spiritual presence): 칼빈의 주장이며 개혁주의의 입장이다. 성찬에 예수님의 몸이 실제로 임하는 것도 아니고, 동시에 성찬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념에 불과한 것도 아니다. 성찬을 행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참여자들에게 영적으로 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찰스 하지 (Charles Hodge)는 칼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성찬식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능력으로 (dynamic) 임재한다. 이것은 마치 태양이 하늘에 있으면 땅에 태양의 빛과 열이 임하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바빙크는 칼빈의 영적 임재설을 "신비설" (mystical theory)이라 칭했다.

(고전 11:23-26 교훈)

고전 11:24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의미이다. 성찬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믿게 하고 또한 확신하며 살기를 원하신다.

(1) 성찬식은 예수님의 명령이다. "이것을 행하여" (Do this) 두 번 나온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다. 성찬은 주님의 권위로 우리에게 명령되어진 예식이다. (2) 성찬은 주님의 구속사역을 기억하는 일이다. "나를 기념하여" 두 번 나온다 (24-25절). 기념(ἀνάμνησις)이라는 말은 "기억"

logos)가 합쳐져서 되었다. 이는 "마지막 일들에 관한 가르침"이란 뜻이다. 종말론에는 개인적인 종말론과 우주적인 종말론이 있다.

개인의 종말론은 육체의 죽음, 영혼불멸성, 중간상태, 그리스도의 재림, 죽은 자들의 대부활, 최후의 심판, 최후의 상태 등이다. 그리고 우주적 종말론은 세상의 마지막이다.

A. 구약의 종말론

성경의 종말론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계시의 유기적 연관성"을 알아야 한다. 종말론이란 성경 중 어느 한 부분이나 구석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구약의 다니엘서나 요한 계시록과 같은 책에서만 가지고 종말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유기적으로 일관성있게 바라보아야 한다.

구약에 나타난 장차 오실 구속자의 대방사상은 종말론의 개념을 가진다.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주셨다. 구속자가 오신다는 언약 자체가 구약의 종말론의 핵심 사상이다. 앞으로 오실 구속자는 창세기 3:15에는 여인의 후손으로 묘사되고, 창세기 22:38 (26:4:28:34) 에서는 구속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임을 예언하고, 그리고 창세기 49:10은 구체적으로 이 구속자가 유다의 지파로부터 나올 것을 예언한다. 이사야 7:14에서는 장차 오실 구속자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칭하게 될 것이다. 장차 오실 구속자는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시며, 동시에 이사야서에서는 그 구속자를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된다. 그리고 구속자의 타이틀이 다니엘 7장에서는 "인자"란 용어를

Worldwide Church Directory (Worldwide Church Directory)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sections for: 감사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남가주든한교회, 남가주사랑교회, 대흥장로교회, 디아스포라선교회, 미주양곡교회, 미주평안교회, 복음장로교회, 베델한인교회, 세계소망교회, 세계선교회, 실비치 사랑교회, 열매교회, 엘피스지역원, 은혜한인교회, 주님세운교회, 주님의영광교회, 좋은마음교회, 코너스톤 교회, 토렌스조은교회, 히슬소망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의 [외심, A Call to the Unconverted]

10장 회심하려는 분에게 드리는 지침 (1)

이 설교를 들으며 회개하여 살려는 뜻을 가진 분이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우리가 어떻게 진정으로 회심할 수 있는가? 만일 이와 같은 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의도라면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들에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말한다. 여러분 안에 이런 의도를 실행해 나갈 마음이 있거든 한다면 나는 기쁘게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지침을 드리겠다.

[지침 1] 회심의 필요성과 본질을 알기 위해 노력하라

1) 회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여러분이 회심하기 전까지 여러분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지 생각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안전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일찍이 여러분이 범했던 온갖 죄책 아래 있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었다. 여러분은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서 날마다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을 대적해서 마귀의 일을 했다. 영적으로 죽어 있고 왜곡되어 있으며, 거룩한 생활과 본성과 하나님의 형상이 결핍되어 있다. 여러분은 거룩한 사역에 적합하지 않으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은 하나도 하지 못한 다.

[질문] 왜 우리는 반드시 회심해야만 하는가?

[대답] 회심하면 다음의 것들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1) 살아서 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것
여러분은 회심하는 즉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게 되며,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모

든 은혜를 입게 되고, 새롭고 천상적인 삶을 살게 되며, 사탄과 죄의 지배로부터 구원받게 되고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롭다함을 받는다. 여러분의 생애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된다. 성도들의 형제됨과 교제와 기도도 동참하게 된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맛보게 된다. 여러분은 결코 지옥에 가지 않으며, 여러분의 평화와 행복은 여러분의 비참함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클 것이다.

(2) 죽은 후에 천국에서 얻게 되는 것
그런 다음 죽을 때 여러분의 영혼은 그리스도에게로 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회심함으로 얻은 영광 안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2) 무엇으로부터 회개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모든 회심하지 않은 사람의 목표인 탐욕적인 자신으로부터, 또 늘 즐기려고 하고 여러분을 미혹하려고 하는 육신이며, 세상과 영혼의 사기꾼인 마귀와 모든 고의적인 죄악들에 속한 것으로부터 회개해야 한다.

3) 회개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여러분의 목표는 하나님에게로, 아버지께 가는 길로서



며, 심판 날에 몸과 영혼이 모두 의롭다 함을 받고 영화롭게 되며 여러분의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거기서 여러분의 행복은 다음의 개별적인 것들과 조화를 이룰 것이다. 첫째 여러분은 완전한 인간이 될 것이다. 둘째 여러분의 일은 모든 천국의 동료 백성들과 함께 영화로운 구세주를 보는 것이며, 가장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으며 영원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셋째 여러분의 영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시인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넷째 여러분의 영광은 영원토록 여러분 안에서 존귀함과 기쁨이 되실 구세주의 영광에 공헌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영원히 찬양 받기에 합당하

그리스도에게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지정한 길인 거룩함이어야 한다.

4) 회개의 수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우리 주와 중보자로서 그리스도, 거룩하게 하는 자로서의 성령님, 성령님의 도구와 수단으로서의 말씀이다. 그리고 여러분 편에서 수행해야 할 수단과 의무로서 믿음과 회개이다.

[지침 2] 진지한 내용을 묵상하라

만일 여러분이 회개하여 구원받고 싶다면 조용하게 진지한 생각들을 많이 하라. 여러분 자신이 창조된 목적과 여러분이 살아온 삶과 여러분의 실패와 지은 죄들을 생각하라.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고난과 충만하심을 묵상하라. 또 여러분이 처해 있는 위험, 죽음과 심판의 압박함, 천국의 기쁨의 확실성과 탁월함, 지옥의 고통의 확실성과 두려움, 천국과 지옥의 영원함, 그리고 회심과 거룩한 삶의 필요성 등에 대해 묵상하며 이것으로 마음을 채우라.

[지침 3]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라

만일 여러분이 회심하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통상적인 수단인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라.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적용하는 다른 신앙 서적들을 읽으라. 계속해서 공격적인 설교

에 주목하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이신 사역자들을 통해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구원하실 것이다(행 26:17,18; 마 5:14).

[지침 4] 부단히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하나님께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여러분의 이전 생활을 고백하고 통회하라. 그리고 여러분에게 조명해 주시고 회심시켜 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성령으로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주시며 인도해주시도록 기도하라.

[다음 호에서는 '회심하려는 분에게 드리는 지침 5~10'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younsuklee@hotmail.com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사·모·칼·럼



허양희 사모

(텍사스 오스틴 주님의교회)

화목한 삶

지난주 교회 중보기도 모임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 "화목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많은 자매들은 용서, 오래 참음, 양보, 이해, 배려, 경청, 섬김, 사랑, 질서에 순종, 공감 등을 말했다. 이 단어들을 화이트보드에 적은 후 또다시 질문했다. "방금 나열한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자아 죽음, 예수님 삶의 모습, 자아 내려놓음"이라고 답한다. 그렇다. 화목한 삶을 살기 위해 나열한 단어들은 내 중심적인 사고에서 발현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자기 부인이 공통점이다.

성경 예레미야를 읽다가 크게 공감한 부분이 있었다. 남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던 예레미야를 사람들은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자 이 선지자는 낙심하여 하나님께 애끓는 탄원을 하며 영과 육의 고갈을 호소한다. 이때 하나님은 "네가 마음을 돌이켜 내게 돌아오면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나를 섬기게 하겠다. 너는 헛된 말을 하지 말고 값진 말을 해야 한다. 그러면 나를 대신해서 말하는 나의 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 (예레미야 15:19). 건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던 예레미야는 자기 역할을 해야 했다. 곧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힘든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그 상황으로 인해 생긴 부정적인 감정에 충실해지곤 한다. 이때를 놓칠세라 악한 영은 그들의 자아를 충동질하여 더욱 그 본능적인 감정에 집중하도록 부채질한다. 그런데 사람이 부정적인 감정에 충실하면 할수록 그 영혼은 회복과는 동떨어진 자아의 요구에 더욱 착념하게 되어 죄의 깊은 수렁으로 깊이 빠져들어 버리는 것 같다. 예레미야도 그가 겪은 고통으로 회의와 절망의 수렁에 빠져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찾아오셔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예레미야의 뜻을 요구하신다. 곧 자기 부인을 요청하신다. 영혼의 고갈에서 회복되는 길은 부정적인 감정에 충실한 것에서 돌이키는 행위가 선행되어야 한다.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의 핵심은 모두 자기 부인과 관련된 것 같다. 자기를 너무 주장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나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삶의 기초를 다지고 세우기보다는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원초적인 자아가 이끄는 대로 행동을 선택하는 많은 경우를 본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복을 주지 않는다고 분노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어쩔 수 없다는 자기 합리화는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에서 돌이켜 거룩함을 회복해야 한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나침반이 되도록 해야 한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온갖 삶의 부정적인 찌꺼기로 가득찬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죄악된 자아를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기를 원하신다.

화목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자기를 비우고 새계명으로 우리를 채워야한다. 자기감정에 충실한 삶을 살기보다는 빨리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말씀에 충직한 삶을 살아야 한다. 내 안에서 스물스물 피어오르는 부정적인 감정을 제어하기 힘들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여 마음의 정원을 잘 관리하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목 시키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18).

yanghur@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Galbraith, Danjok, Gonggore, Baskin, Bannell, Boston, Saesang, PCAs, Ilkasa, Yangkeon, Yongsang, Killin, Winstone, Tacoma, and others.



목회서신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우리가 잘 가꾸어야 할 사랑 나무

인생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인하여 모든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이 사랑으로 인하여 사람이 행복을 누립니다. 이 사랑으로 인하여 세상이 점점 더 밝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에 성공하여야 인생에 성공자가 될 것입니다. 천하를 다 얻어도 사랑에 실패한다면 인생 실패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랑

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는 자기 사랑의 소원을 이룬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절대적이 지 못하고 영원히 지속 되지 못합니다. 사랑은 변화무쌍한 가능성을 지닌 예측 불가의 속성도 가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랑에 울고 사랑에 웃게 됩니다.

사람들은 사랑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하기를 주저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사랑의 실패로 인한 결과를 예측하거나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에게 사랑의 기쁨과 슬픔을 많이 경험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로 인하여 하늘로 솟을 것 같은 기분의 기쁨을 누

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게 사랑의 기쁨과 에너지를 주던 사랑의 이들로 인하여 당하는 찢어지는 것 같은 가슴 아픈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비교적 안정된 교회 안에서 사역 하는 목사가 겪는 사랑의 고통이 이러하다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사랑의 상처가 많을까 짐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행가 가사처럼 "사랑하기를 포기" 한 사람들이 여기 저기 많다는 소식을 읽고 듣기도 합니다. 사랑의 상처를 받기 싫어서 사랑을 하지 않는다는 이상한 논리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본질 적이지만 동시에 관계성을 가집니다. 헬라 사람들은 일찍이 사랑의 관계성을 네 가지로 잘 정리했습니다. 남자와 여자 곧 사랑하는 남녀 관계성의 사랑을 에로스라 한 것입니다. 친구와 친구 곧 사랑하는 친구의 관계성 사랑을 필리아라 한 것입니다. 가족과 가족 간의 사랑하는

가족관계성의 사랑을 스톨케라 한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초월적 사랑을 아가페라 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 외의 수많은 관계성의 상황이 많이 있을 것이지만 관계성의 원리는 동일하리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저는 사랑의 관계성이 나무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관계성이고, 그 관계성을 기초로 그 사이에서 사랑 나무를 잘 길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농부가 과일 나무를 잘 가꾸듯이 사람들은 관계성 속에서 사랑나무를 잘 가꾸어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은 나무와 같습니다. 그 사랑 나무를 잘 가꾸면 그 사랑 나무에서 거두어들이 열매가 수도 없이 많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본질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몸소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참 사랑의 본질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 나무를 잘 가꾸는 농부가 되라고

하시며 많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사랑이란 나무를 키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나무 한 그루를 잘 기르면 그 사랑 나무에서 인생에 귀중한 온갖 열매들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는 사람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 열매들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힘찬 삶의 에너지를 얻게 해 줍니다. 그 열매들은 나와 너, 우리와 그들, 이곳과 저곳에 평화를 가져다줍니다. 그 열매들은 가정을 복되게 합니다. 그 열매들은 교회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 열매들은 우리가 사는 이 각박한 사회를 훈훈하고 정겨운 사회로 만들어 줍니다. 우리는 그 어떤 나무보다도 소중한 사랑의 나무들을 잘 가꾸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cyd777@hotmail.com



제17회 시로 드리는 예배가 온라인으로 열렸다

제17회 시로 드리는 예배 ZOOM으로 드려

“독특한 색채와 향기로 우리의 시를 빚어가고 영광 받으실 것”

문화선교원 시전(대표 이인미 전도사)에서는 지난 1일 줌으로 제17회 시로 드리는 예배를 드렸다. 언어의 주인인 하나님께 언어의 예배드리기 '시로 드리는 예배'는 2009년 로스펠리교회 문화원에서 시작되어 14년을 이어 이제 제17회로 드렸다. 이인미 시인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큐티를 통한 시 창작' 교실 17기를 수료한 류재덕, 강혜옥, 장애리, 김낙인 동인의 시 낭송과 강중애, 조미나, 안종미, 윤일홍, 이영숙, 최명희 시인, 어미선, 허윤아, 김선아, 김한필, 정한나, 김지연 동인의 시 낭송으로 이어졌다. 이날 '좋은

아니라 친구로'(요15:14-15)란 제목으로 설교한 이상명 목사(미주장신대 총장)는 “천국은 인간을 포함한 만물의 본성을 통찰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시인들이 모인 곳이라 나는 추정하고 있다. 시인의 정서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거나 영혼의 샘물이 말라버린 사람들이다. 우리의 본래 자리는 코람테오 하나님 앞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는 사람은 돈과 권력과 명예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는다. 세상살이가 아무리 어려워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문제보다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오늘 드리는 시와 찬양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세계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함께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미나 시인의 '주 말씀 내 삶 비추며' 찬양과 백승철 목사(시인, 문학평론가, 사모하는 교회 담임)의 격려사가 있었다. 한편 시전 대표인 이인미 시인은 인사말에서 “시전은 우리의 시 쓰는 과정과 서로 협력하는 모든 결과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는 곳이다. 그렇게 주님이 여기까지 이어오셨다. 계시록에 사내아가 나오는데 순교자다. 사내같이 용맹스럽지만 동심의 아이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신다는 말씀을 시전에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와 찬미를 받으실 것이다. 각기 독특한 색채와 향기로 우리의 시를 빚어가고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시로 드리는 예배는 이상명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시전 제18기 '큐티를 통한 시 창작'은 가을학기 에 개강될 예정이다. ▲문의: (818)590-6469 (정리: 박준호 기자)



미성대학교 학위수여자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제 21회 AEU (미성대학교) 학위 수여식

윤혜란 교수 명예박사 & 15명 학위수여

미성대학교(총장 이상훈 박사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이하 AEU)는 제 21회 학위수여식이 8일(토) 오후 4시 유니온교회 (담임 구자민 목사)에서 현장과 온라인으로 열렸다. 급년 학위수여식에서 학사 1명, 목회학 석사 5명, 상담학 석사 1명, 리더십 석사 6명, 행정경영학 석사 2명이 학위를 받았다. 학위 수여식에 앞서 열린 예배는 AEU 행정부 총장 조성호 목사의 사회로 진

행되었다. 이어서 미주성결교회 총무 김시은 목사의 기도과 이사장 구자민 목사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부르신 곳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학위 수여식이 교무처장 신종석 박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학위 수여식 및 시상과 이상훈 총장의 훈화와 파송 기도, 류종길 명예총장과 미주성결교회 총회장 허정기 목사의 축사가있었다. 특히 이번 학

위 수여식에서는 그동안 AEU 설립 이후 변함없이 기도와 재정으로 참여하며, 캄보디아 선교, 몽고 선교에 헌신한 윤혜란 교수를 명예박사로 추천하고 이사회 승인을 얻어 학위를 수여했다. 이날 졸업생들은 모든 학위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된 것을 감사하며 교수들과 가족들에게 고마움의 마음을 전했으며 온라인 강의로 참석해온 해외 거주 학생들도 온라인을 통해 졸업식에 참여하며 기쁨과 감사를 나누었다. 다음은 제 21회 AEU 학위수여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Bachelor of Arts in Ministry Leadership(1명): 김미자 △Master of Divinity(5명): 김성환, 김소명, 최성자, 비비안 박, 김영환 △Master of Arts in Counseling(1명): 조진호 △Master of Art in Organizational Leadership(6명): 이종영, 박정연, 박그레이스, 김수영, 편경석, 김소연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2명): 알렉스 칸드라, 페로 라파엘 △Doctor of Divinity(1명): 윤혜란 (기사제공: 미성대학교)

온라인에서 잘못된 정보와...

4면에서 계속) 자기네들 사이에서 '적극적인 조치'라고 불리는 러시아의 허위 정보 행동 방식(playbook)은 인터넷보다 훨씬 앞서서 KGB가 개발했다. 뉴욕 타임스는 탁월한 한 다큐 시리즈에서 허위 정보를 뿌리기 위한 KGB의 7단계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 1. 균열 찾기: 가장 분열되고 적대적인 사회를 찾아 그곳을 완전히 붕괴시켜라.
2. 큰 거짓말: 차마 거짓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정도로 엄청난 거짓말을 만들어내라.
3. 진실 편집(kernel): 신뢰를 주기 위해서라도 거짓 주변에 약간의 진실을 양념으로 섞어주라.
4. 손 숨기기: 거짓의 출처를 쉽게 찾을 수 없도록 하라.
5. 유용한 바보: 적개심에 넘치는, 그래서 어떤 거짓말이라도 쉽게 믿을 사람들을 식별하라. 그들을 거짓을 열심히 퍼 나르는 무식한 돌쇠(mules)로 삼으라.
6. 모든 것을 부인하라: 증거가 무엇이건, 무조건 아니라고, 거짓의 조작에 연루된 모든 것을 부인하라.
7. 장기전: 오랜 시간 동안 뿌린 수많은 거짓 중에서 단지 몇 개만 뿌리를 내린다. 그러므로 되도록 많은 씨를 뿌려라. 그리고 싹이 나오는 것을 보고 가장 가능성 있는 거짓에 더 투자하라.
이것이 바로 피자게이트(Pizzagate, 역주 힐러리 클린턴 전 민주당 대선후보와 그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던 존 포데스타가 워싱턴DC의 한 피자집에서 소아성에 행위를 즐기고 인신매매까지 한다는 짜라시)가 일어난 방식이다. 러시아는 존 포데스타(John Podesta)의 이메일을 해킹하여 위키리크스(WikiLeaks)에 공개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자신들의 손을 숨기고, 나중에 모든 관여까지 부정할 수 있었다. 그로부터 몇 달이 빠르게 지나갔고, 포젠(4chan)의 익명 그룹이 포데스타와 코스모 피자(Cosmo Pizza)가 주고받은 이메일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 이메일이 바로 '진실 편집'에 해당했다.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큰 거짓말은 클린턴 부부가 식당에서 비밀 아동

성매매 조직을 운영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암호화된 언어가 그 이메일에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그러자 유용한 바보들이 알아서 그런 거짓말을 믿었다. 그리고 주류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마구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달이 더 지난 후, 총을 든 그리스도인이 존재하지 않는 지하실에서 아이들을 구출하겠다고 코스모 피자 앞에 나타났다.

자, 이렇게 불만과 불신이 쌓였다. 더 놀라운 건, 클린턴이 운영하는 성매매 조직에 대한 소문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허위 정보 및 잘못된 정보에 저항하기 위한 여섯 가지 원칙

허위 정보와 잘못된 정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거짓에 맞서 무장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다음은 온라인에서 거짓을 현명하게 피하기 위한 여섯 가지 추가 원칙이다.

- 1. 선정적인 헤드라인을 검증하라. 이야기 또는 인용문이 이상하게 들린다면, 아마도 그건 진짜로 이상해서 그럴 것이다. 우리에게는 적을 악마화하는 헤드라인을 믿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에 싫어하는 사람을 꺾어내려는 게시물을 읽을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알고리즘은 당신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고 있다. 분노에 불탄 당신을 플랫폼에 일조라도 더 머물게 할 수만 있다면, 알고리즘은 당신의 분노에 불을 붙이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이다.
2. 클릭, 댓글, 공유, 좋아요를 선택하기 전에 출처부터 확인하라. 포스트에 동의하기 전에, 알고리즘을 향해 이렇게 말하라. “비슷한 내용이 더 있어? 보여줘.” 클릭하기 전에 자료의 출처를 확인하여 자신을 보호하라. 일반적으로 원본 웹 사이트는 그림 아래에 표시된다. 평판이 좋고 잘 알려진 기관이 아닌 경우 참여하기 전에 그 사이트를 먼저 구글에서 검색하라. 그렇게 함으로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생성하는 미래의 허위 정보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3. 보는 것은 꼭 믿는 것은 아니다. 사진도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다. 동영상은 얼마든지 맥락에서 벗어날 수 있다. 유포이 크가 문제이다. 사진을 구글 이미지로 끝어다 놓으면 종종 원본 소스와 콘텍스트를 찾을 수

있다. 유튜브에서 연설을 검색하면 인용에서 왜곡되었을 수도 있는 원래 맥락을 찾을 수 있다.

4. 말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 안타깝게도, 외국 세력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되는 무식한 돌쇠로 삼는 미국 내 세 그룹 중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MIT Technology Review에 따르면, 상위 20개 기독교 페이스북 페이지 중 19개를 외국의 악의적 단체(troll farms)가 운영하고 있다. 그들의 전략은 이것이다. 정상적인 기독교 페이지에서 95 퍼센트의 기독교 콘텐츠를 훔친 다음, 거기에 5퍼센트의 미친 정보(insanity)를 살짝 포함하는 것이다. 이런 전략은 그리스도인을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유용한 바보”로 만드는 데 실로 효과적이다.

5. 헤드라인만 읽고 끝내지 말라. 마케팅 담당자가 좋아하는 것은 클릭 유도(clickbait)이다. 당신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그들은 헤드라인에 단지 절반의 진실만 넣는다. 많은 사람들이 클릭하지 않고 헤드라인이 사실이라는 가정에 쉽게 빠진다. 아무리 정직한 헤드라인이라도 전체 이야기를 다 요약할 수는 없다. 전체 내용을 다 읽으라.

6. 틀렸을 때, 그 사실을 인정하라. 내 친구 마이클 그라함(Michael Graham)은 내가 앞에 서 언급한 9/11 테러 93편기 내 용을 공유했다. 그리고 그는 충격적인 일을 했다. “이게 다 내 잘못이요!(mea culpa)”라고 그가 선언한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와 정직함이 없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평판보다 진실에 더 관심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 이것은 예수님이 증언하는 우리의 주장에 엄청난 신빙성을 부여한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 이러한 냉소주의가 온라인에 넘쳐나는 비진리의 답이 될 수 없다. 그 대신 우리는 진실을 추구함으로써 진리를 사랑해야 한다. 탈맥락화에 직면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맥락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 잘못된 정보에 직면하여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명성을 가져야 한다.

# 동부교계 기사판

뉴저지한인목사회, 교회에 쉽게 적응하는 회복사역 세미나  
 뉴저지한인목사회(회장 홍인석 목사)는 “교회에 쉽게 적응하는 회복사역 세미나”를 7월 24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30분 까지 조희창 목사(뉴욕장로교회신학대학 교수)를 강사로 뉴저지장로교회에서 개최한다. 점심이 제공된다.  
 ▲문의: 201-638-1627

뉴욕평강교회, 2023 특별부흥집회 강사 김영주 목사  
 뉴욕평강교회(담임 이종태 목사)는 2023 특별부흥집회를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 (요11:44)”을 주제로 8월 25일(금) 저녁 7시부터 27일(주일)까지 김영주 목사(기쁨이넘치는교회 담임)를 강사로 개최한다.  
 ▲문의: 뉴욕평강교회 917-386-8852

ACE 대학 청년수련회  
 다음세대를 세워나가는 ACE(사무총장 장규준 목사)에서 대학 & 청년 수련회를 8월 17일(목)부터 19일(토)까지 뉴저지 라마나웃 기도원에서 열린다. 강사는 임홍섭 목사(노아 라이프 코칭 센터 대표)이며 참가비는 \$150이다.  
 ▲ 문의: 장규준 목사 646-266-0039



보스턴장로교회 제 2선교회 찬양(위),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찬양(아래)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찬양, 감사패전달(아래)

## 보스턴장로교회, 제 2선교회 헌신예배

### “매 순간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보스턴장로교회(담임 장성철 목사) 제 2선교회 헌신예배가 6월30일(금) 오후 8시 은혜 가운데 드러졌다.  
 이영민 집사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기도 김지홍 집사, 특송 제 2선교회 일동, 성경봉독 홍경희 권사, 설교 정기태 목사(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감), 봉헌 기도 김만술 집사로 진행됐다.  
 정기태 목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 (민수기 6:22-26)”이라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은 늘 지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며 “매순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삶을 살고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의 감격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평강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장성철 목사는 선교회와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를 위해 합심기도를 인도했으며 정기태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보스턴장로교회 제 2선교회는 54년생부터 63년생까지의 연령으로 구성된 선교회로서 OTR Living Water, 미주 어린이 전도집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를 후원하고 있다. 이날 본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동부

개혁장로회신학교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으며 신학생들이 ‘충만’이라는 제목의 찬양을 했다. 한편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김성국 목사)에서는 매일 장학금을 보내주어 신학생들이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있는 보스턴장로교회에 감사를 표하며 장성철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전덕영 목사에 이어 8년째 사역을 담당해 오고 있는 장성철 목사는 “교회 안에 소외되고 노력이 부족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밀알사역(사랑부 사역)을 시작하여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지적장애는 성인이 되면 정부지원이 중단되어 부모들이 돌봐야 한다. 이들을 위한 데이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꿈”이라고 전했다.  
 또한 창고로 사용하던 두 곳을 다음 세대가 모일 수 있는 공간과 교인들이 힘을 가질 수 있는 북카페로 리모델링 한 곳으로 안내해 주며 “팬데믹 이후 70가정이 등록했다”고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 보스턴장로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기대해 본다.  
 (홍현숙 기자)



전교인여름수련회 단체 사진을 촬영했다

## 퀸즈장로교회, 2023 전교인여름수련회 개최

### 손경민 목사 “이것이 행복이라고”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는 2023 전교인여름수련회를 “이것이 행복이라고”라는 주제로 7월 4일(화), 5일(수), 9일(주일)에 퀸즈장로교회 본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수련회의 강사는 “은혜”, “행복”, “감사” 등의 CCM 찬양곡을 작곡한 손경민 목사이다. 독립기념일인 7월 4일(화) 오전부터 시작된 이번 수련회는 “이것이 행복이라고”라는 주제 아래 ‘성경적 행복의 회복’, ‘행복한 삶’, ‘감사’, ‘정결’, ‘충만’, ‘은혜’, ‘가장 귀한 일상’을 주제로 총 8편의 설교가 전해졌다. 손 목사는 각 설교를 통해 자신의 여정을 때부터 시작하여 여러 가지 경험을 간증했다. 특히 손 목사가 작곡한 곡들을 작곡하게 됐던 간증을 나누며 전한 설교들을 통해 매 시간 큰 감동을 줬다. 이번 수련회에 동행한 김정희 사모, 이기명 전도사, 우혜림

간사와 함께 매 설교마다 함께 찬양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 열린 찬양집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토요일 오전에는 찬양 세미나 시간을 통해 찬양의 의미와 사역현장에서 실질적인 부분에 대하여 나눴다. 질문 시간을 통해 찬양 엔지니어로부터 시작해서 작곡가, 찬양 사역자로서의 경험과 지식을 전했다. 한편 손경민 목사 팀의 찬양 시간 외에도 행복 콘서트를 통해 성악과 악기 연주를 비롯한 클래식 찬양의 시간을 가졌으며 경품 시간과 장기자랑 시간을 통해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는 유쾌한 친교와 화합의 시간을 가진 후 주일 저녁 전교인 BBQ 저녁 식사 시간을 끝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김재상 기자)



독립기념일 페스티벌 음악회에 앞서 김재열 목사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 뉴욕센트럴교회, 독립기념일 페스티벌

### “진정한 독립과 자유는 복음”

뉴욕센트럴교회(담임 김재열 목사)는 제3회 독립기념일 페스티벌을 7월 2일 주일 오후 6시부터 열었다. 이번 페스티벌은 교회 잔디밭에 지역 주민들을 초청하여 무료 음식과 음악,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게임 등이 진행됐다. 이어 8시부터는 광명국 장로의 지휘로 수준 높은 음악회와 마지막을 축하 불꽃놀이로 장식했다.  
 지난해에는 경사진 잔디밭에 모여 노천극장을 이루고 음악회가 진행됐으나, 올해는 비가 예보된 가운데 예배당에서

진행됐다. 특히 90%가 넘는 비가 예보된 상태였지만 행사 중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 행사를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었다.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 성조기가 휘날렸지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음악회에 앞서 김재열 담임목사가 페스티벌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초청의 인사를 했다.  
 김 목사는 독립기념일에 또 다른 독립을 전하며 “누구에게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필요하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렸다. 죄는 모든 사람을 죽음이라는 것으로 정복했다. 누구나 이를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주심을 약속했다. 그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독립”이라고 전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정리: 김재상 기자)

의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사랑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말씀 후에 찬양과 통성기도가 이어졌고, ‘회개와 Encounter’(하나님과 만남)의 간증들을 나누는 뜻깊은 수련회였다.  
 (정리: 김재상 기자)



수련회 중 기념촬영을 했다

## 2023년 뉴욕선교대회,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 제 3차 준비기도회

### “구원을 중심으로 사랑이 넘치는 충성된 잔치”

뉴욕교협(회장 이준성 목사)은 7월11일(화) 오전 10시30분 뉴욕선한목자교회(담임 박준열 목사)에서 2023 뉴욕선교대회 및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를 위한 제 3차 준비기도회를 개최했다. 이준성 목사는 “뉴욕선교대회는 뉴욕에 있는 각 교회에 선교를 할 수 있는 방법과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데 목적이 있고,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는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어 변화되고 헌신되어 교회에 새로운 일꾼으로 거름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유상열 목사(정관위원장)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는 기도 이승진 목사(예배준비위원장), 설교 정순원 목사(증경회장), 헌금기도 송윤섭 장로(회계) 순으로 진행됐다.  
 정순원 목사는 ‘그리스도인의 고민 (고후 7:5-11)’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인은 신앙을 위한 근심, 사랑을 위한 근심, 주님께 헌신 충성하는 근심을 해야한다”며 “뉴욕선교대회와 할렐루야 뉴욕복음화 대회가 한마음, 한 뜻이 되어 구원을 중심으로 사랑의 큰 잔치가 되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께 충성하는 성령충만한 아름다운 대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합심기도의 시간을 갖고 △ 2023

뉴욕선교대회 및 할렐루야 뉴욕복음화 대회를 위해서 이종선 목사(주남시작교회), 김택용 목사(협력위원), △ 2023 할렐루야 어린이 복음화대회를 위하여 김영철 목사(감사)의 순으로 인도했다. 1부 예배와 합심기도는 한문수 목사(뉴욕서울장로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뉴욕선교대회는 김인영 선교사(파키스탄), 정재영 선교사(튀르키예), 홍요섭 선교사(호주), 정치현 선교사(볼리비아), 하덕신 선교사(과테말라), 김성현 선교사, 김명두 선교사(니카라과), 장명환 선교사, 정장연 선교사(튀르키예), 허수성 선교사(태국), 김명강 선교사(중국), 윤병국, 이해주 선교사(말레이시아) 등이 참석한다. 또한 이번 대회에 참석하는 선교사의 숙소는 롱아일랜드에 위치한 예수서원(고석희 목사)에 준비됐다.  
 본 준비기도회에는 월드그라운드(대표 김명순 권사) 참석하여 “이번 대회에 모든 교회가 일어나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유승례 목사(총무)의 광고, 박태규 목사(부회장)의 폐회 및 오찬 기도모임 순서를 마쳤다.  
 (홍현숙 기자)



2023년 뉴욕선교대회와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 제 3차 준비기도회 마친 후 사진촬영 했다

## 뉴욕장로교회, 중동선교세미나

뉴욕장로교회(김학진 목사)는 중동지역 사역을 통해 이뤄지는 하나님의 일들을 나누며 중동과 뉴욕 땅을 새롭게 바라보는 선교의 눈을 열고자 7월29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중동선교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 중동지역 국제정세의 흐름과 현황 △무형의 플랫폼을 통해 새 시대, 새 세대를 향한 선교전략 △잇혀진 디아스포라들의 소명과 돌파사역을 통한 부르심 등의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사는 홍재훈 선교사(로드마스터 대표)가 초청됐다.  
 홍재훈 선교사(로드마스터 대표)는 현재 로드마스터 대표이며 대학(GTEP)에서 중동지



역 관련 강사, 햇빛 트리니티 이슬람연구소 부소장, 아랍 에미리트 지역의 문화센터(KUACA) 회장, 아부다비 온누리 선교협력 목사, GMP 선교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등록마감은 7월 26일이며 등록비 \$20이다. 점심 식사와 간단한 간식이 제공된다. 문의는 손주영 전도사 718-706-0100으로 하면 된다.  
 (홍현숙 기자)

## 기감 동북부지방 새로운 시도

### 4개 교회 YG와 EM 연합 수련회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지역 연회 동북부지방 주최로 ‘제1회 Encounter Retreat’이 7월 2일부터 4일까지 커네티컷중앙교회(GMC, 김정환 목사)에서 열렸다.  
 수련회는 뉴욕한인제일교회(송인규 목사), 새하늘교회(임성근 목사), 주님의교회(김용태 목사), 커네티컷중앙교회(김정환 목사) 등 4개 교회의 YG, EM, 성도, 목회자 등 70여명이 참석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었으며 지방회가 주최하여 처음 열린 연합 수련회로 청소년(YG)이나 영어회중(EM)이 줄어가는 시점에서 필요한 연합

이었다.  
 뉴저지 Sojourner장로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는 제임스 박(James Park) 목사가 주강사로 수련회기간 동안 말씀을 전했다. 10살 때 가족과 함께 이민 온 박 목사는 4편의 말씀을 통해 한국적 정서를 통해 서만 느낄 수 있는 재치 있는 유머와 감동의 메시지를 전했다.  
 제임스 박 목사는 ‘What is Love?’라는 주제의 말씀을 통해 “사랑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주제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

**미주 크리스천신문 구독문의**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240
캐나다	\$130	남미	\$240
한국/동남아시아	\$240	아프리카	\$240

611 S. Catalina St. #305  
 L.A. CA 90005  
 213)674-7982,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중독과 정신질환의 예방, 회복 및 치유세미나

#### ‘정신질환과 중독에서 치유되는 방법 제시’

성신장로교회(담임 권오균 목사)가 술, 마약, 미디어, 성, 도박 등의 중독과 정신질환에 관심이 있거나, 이로 인해 고통 받는 본인이나 가족들을 돕기 위해 ‘중독과 정신질환의 예방, 회복 및 치유 세미나’를 8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최했다.

이날 시양 양 탠 박사(풀러신 학교 심리대학원 교수)는 ‘정신질환과 중독에서 치유되는 핵심과 낙인 제거 방법’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탠 박사는 “정신장애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며 정신장애를 정서적문제로만 볼 수 없다”며 “불안 증세와 우울 증세는 심각한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약을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담이나 친구, 그리고 기도와 교회의 지지가 필요하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독은 습관적이고 반복적이며 결과에 관계없이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모든 생각이나 행동이다. 중독예방을 위해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 자신의 이야기를 타인에게 자유롭게 말 할 수 있어야 한다. △ 중독관련 도서를 보는 것을 포함하여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중독에 대한 낙인을 없애야 한다 △ 교회에서 설교와 세미나 등을 통해 정신질환에 대해 나누어야 한다 △ 교회내에서의 소그룹을 비롯한 교제를 통해 안전한 관계를 장려해야

한다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 접근가능한 곳에 거주하는 것이 좋다 △사랑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 △정신질환은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는 만큼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 △상담사와 상의해야 하며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이 되어야 한다. △저녁 9시 이후에는 연락을 자제 하거나 해야 한다 △소그룹장려 △자료활용 △조울증 등 지지그룹을 만들어야 한다 △전문상담사 등 전문가에게 정신질환자를 넘길 수 있는 의뢰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백현민 목사(미가 치유사역 Director)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조현병에서 건지셨는가’, 한영호 목사(나눔 선교회 Director)가 ‘술 마약 중독치유의 실제’, 앤드류 성 박 교수(UTS)가 ‘충격적인 병들의 역압과 영육혼의 자유’, 데이빗 옥스버그 교수(풀러신학대학원 Senior Professor)가 ‘낙인의 민감성, 지원 그리고 결속’, 권오균 박사(GMU 교수, CATC-V)가 ‘술 마약 중독치유’, 조만철 박사(정신과 의사)가 ‘교회의 정신질환과 중독에 걸린 사람들의 치료, 정부 보조 및 가족들의 간병인 신청 등의 혜택’ 등에 대해 각각 강의했다.

(박준호 기자)



김은주 교수 저서 출판기념회가 미주장신대에서 열렸다

### 〈탈진을 긍정하라〉 출판 기념회 열려

#### “탈진은 나를 성찰, 성장시키는 원동력”

미주장신대학교 김은주 교수의 저서〈탈진을 긍정하라〉 출판기념회가 지난 3일(월) 오전 10시 미주장신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 멀티룸에서 열렸다. 이번엔 출간된 〈탈진을 긍정하라〉는 탈진이 지닌 의미를 선교신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했다. 또한 탈진을 미리 예방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기 상황을 진단하고 회복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쓴 가이드북이다. 출판기념회는 미주장신 이상명 총장의 환영사와 김은주 교수의 작가 인사말로 시작하여 미주장신 박전기 객원교수와 김병학 교수, ANC 은누리교회의 아모스 박 목사의 서평이 있었다. 이후 작가와와의 대화를 통해 김은주 교수는 “〈탈진을 긍정하라〉를 통해 탈진이 가진 성경적, 심리

학적, 문화 인류학적으로 접근하여 긍정적인 의미를 살피는데 주안을 두었고 탈진은 나를 성찰,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주장을 담았다”고 말했다. 김은주 교수는 선교 현장에서 다양한 사역 경험을 하였고, 선교사의 경험을 가진 미주장신 선교학 교수이다. 이상명 총장은 “탈진과 긍정은 매치가 안되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탈진을 경험한다. 헌신적 사역자 열정적 사역자들은 탈진을 경험하게 된다. 어떻게 잘 극복해서 좀 더 나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나아가는지에 대해 쓰셨다”고 말했다. 이 책을 통해 공허하고 어려운 시기에 위기와 도전을 잘 헤쳐나가게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제1회 평강블레스콘서트를 마치고 출연자들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제1회 평강교회 블레스콘서트 성황리에 열려

####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족과 이웃에게 나누는 시간”

평강교회(담임 송금관 목사)는 ‘제1회 평강교회 블레스콘서트’를 8일(토) 오후 5시 성황리에 열었다. 김주는 자매의 사회와 송금관 목사 기도로 시작된 이날 콘서트는 싱어송라이터 케서린 조, 소프라노 김미경, 김현주, 테너 오우영, 백동휘, 바리톤 채홍석, 라 루체 챔버 콰이어(지휘 전창한)이 출연하여 은혜롭고 격조 높은 공연을 선보였다. 송금관 목사는 “평강교회에서 처음으로 갖는 ‘평강블레스콘서트’는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로부터 받은 축복을 노래하는 만남을 통해 함께 나누고, 우리에게 전해진 은

혜를 우리의 소중한 가족과 이웃에 흘려보내서 서로 하나가 되는 목적으로 열게 되었다”며 “이번 콘서트를 관람하기 위해 함께해준 분들이 공연을 통해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공연관람을 위해 참석하신 정대용 변호사는 “패셔디나에 살면서 집 근처에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는데 몰랐었다”며 “수준 높은 공연을 볼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말했다. 이날 공연은 여승훈 목사(남가주보배로운교회)의 축복기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 ‘주반석교회’, ‘미라클 LA교회’ 설립예배

#### 담임목사 강현중 목사, 신병욱 목사

연합감리교회(UMC) 칼팩 연회에서 지난달 보직 해임되었던 2명의 목회자 가운데 강현중 목사는 팔로스 베데스 지역에 ‘주반석교회’를, 그리고 신병욱 목사는 LA지역에 ‘미라클 LA교회’를 개척하고 지난 7월 2일 교회 설립 첫 예배를 드렸다. 주반석교회는 이날 오후 2시 교회 개척 첫 예배를 드리고 오는 7월 23일(주일) 오후 4시엔 창립감사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강현중 목사는 “초대교회 신앙 회복의 가치를 추구하는 글로벌 감리교단(Global Methodist Church)이 설립되었고, 주반석교회가 7월 1일 미 서부지역 최초의 글로벌 감리교단의 교회로 창립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

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병욱 목사가 개척한 미라클 LA교회는 지난 7월 2일 주일 성인 112명과 15명의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참석한 가운데 LA한인타운에 있는 EK 갤러리에서 설립예배를 드렸다. 신병욱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개척교회 첫 예배를 드렸다. 교회이름을 미라클 이라고 정했는데 하나님의 혼인 잔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우리와 우리교회에 일어나고 LA에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미라클교회가 세워졌다”고 말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 서부교계 기사판

### 월드미션대학교 찬양세미나 및 목요찬양예배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는 깊이 있는 영성과 뜨거운 찬양으로 한국 CCM계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피아워십(FIA Worship)이 강사로 참여한 가운데 찬양세미나와 목요찬양예배를 20일(목) 갖는다. 피아워십의 피아는 FAITH IN ACTION을 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행동으로 실천하고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피아워십의 신앙 정신을 담고 있다. 피아워십은 35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더인 이동선 전도사는 분당우리교회(담임 이찬수 목사)에서 찬양 인도자로 섬기고 있다.

▲ 문의: (213)388-1000, (213)385-2322

### 제14회 커피브레이크컨퍼런스

제14회 커피브레이크컨퍼런스가 ‘예수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주제로 13일(목)부터 15일(토)까지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에서 열린다.

▲ 문의: (949)285-1560, (949)735-7466

### 제67회 모퉁이들선교회 선교컨퍼런스

제67회 모퉁이들선교회 선교컨퍼런스가 17일(월)부터 20일(목)까지 에반젤리아대학(총장 김성수 박사) 1층 105호에서 열린다. 시간은 오전 10시이며 회비는 \$20이다.

▲ 문의: (714)484-0042

### 제7차 한여름의 시원한 신학강좌

베델교회(담임 김한호 목사)는 장애인 신학 “신학으로 이해하는 장애인”이라는 주제로 제7차 한여름의 시원한 신학강좌를 14일(금)과 15일(토) 양일간 개최한다. 강사는 이재서 교수(총신대학교 전 총장, 현 세계밀알협회 총재), 정승연 교수(총신 교수/부총장 역임, 현 세계밀알협회 이사), 김정기 목사(현 북가주 밀알선교단 단장), 장영준 목사(현 시애틀 밀알선교단 단장, 미주 밀알선교단 부총장단장).

▲ 문의: 조태현 목사 (949)431-8440

### 주빌리 뮤직 아카데미 무료 성악교실

주빌리 뮤직 아카데미(원장 김미경 사모)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무료 성악교실을 개설한다. 6학년부부터 12학년 학생이 참가 대상이며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운영된다.

참가접수 마감은 오는 8월 10일까지.

▲ 문의: JUBILEEMUSICUSA@GMAIL.COM

### 올림픽장로교회 성전이전 감사예배

올림픽장로교회(담임 이수호 목사) 성전이전 감사예배가 16일(주일) 오후 4시에 갖는다. 올림픽장로교회 새성전 주소는 3055 Wilshire Blvd, #220, LA이며 주차는 건물 바로옆길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면 된다.

▲ 문의: (213)387-1700

### 세리토스선교회 임직감사예배

세리토스선교회(담임 방상용 목사) 임직감사예배가 16일(주일) 오후 3시에 갖는다. 이날 임직식은 3명의 장로, 3명 안수집사가 임직되며 1명 안수집사와 8명의 권사가 취임한다.

▲ 문의: (562)402-2919

### 인랜드교회 기도세미나

인랜드교회(담임 안환 목사) 기도세미나가 28일(금)과 29일(토) 양일간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의 강사는 노진준 목사(순회설교자)이며 일정은 28일(금) 오후 7시부터 9시 ‘기도의 영성’, 29일(토) 오전 8시부터 9시45분 ‘기도와 하나님의 뜻’, 오전 10시부터 12시 ‘중보기도’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 문의: (909)622-2324



중독과 정신질환의 예방, 회복 및 치유세미나에서 시양 양 탠 박사가 강의하고 있다



한미동맹 70주년기념 평화음악회를 마치고 금난새 지휘자와 성남시립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인사하고 있다

### 마에스트로 금난새와 함께한

#### ‘한미동맹 70주년기념 평화음악회’ 성황

마에스트로 금난새와 함께하는 한미동맹 70주년기념 평화음악회가 지난 6월28일(수) 오후 7시30분에 월드디즈니콘서트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대총동창회(회장 김종섭·삼익약기 회장)가 기획해 열린 이날 공연은 성남시립오케스트라 단원 및 객원, 협연자 등 총 70여명이 마에스트로 금난새의 지휘아래 미국국가와 애국가 연주로 시작됐다. 이어 조르주 비제(Georges Bizet)의 ‘카르멘(Carmen)’ 하이라이트로 전 주곡, 하바네라, 간주곡, 꽃노래, 집시의 노래, 파날레가 연주되었으며 메조 소프라노 백재은은 카르멘의 여주인공인 카르멘으로 출연해 ‘하바네라(Habanera)’와 ‘집시의 노래(Gypsy Song)’를 남주인공으로 나온 테너 허영훈은 ‘꽃의

노래(Flower Song)’를 불렀으며, 두 사람은 파날레를 이중창으로 선사했다. 또한 각 곡이 어떤 내용과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 연주되고 있는지를 공연자들에게 일일이 연주하게 하면서 곡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면서, 재치 있는 입담으로 공연 내내 관객들을 재미와 감동으로 이끌었다. 인 터미션 후에는 아버지 미국인과 어머니 한국인에게서 태어나 허버드대와 줄리어드를 졸업한 피아니스트 찰리 올브라이트(Charlie Albright)가 조지 거슈윈(George Gershwin)의 ‘랩소디 인 블루(Rhapsody in Blue)’와 ‘아를르의 여인 모음곡 2번’을 성남시향과 협주했으며 앵골곡으로 아리랑을 피아노로 독주했다.

(박준호 기자)

## 피종진 목사 7월 부흥성회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ik(Th.D)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1(토) 오전 3(월) 오후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308) 주회: 신문방송 TV 한일선기도원 (원장 이영근 목사) 주회: 한미연합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 이귀범 목사) 010-2238-3999

4(화) 오후 서울 삼각산 선기도원 (원장 김승자 목사) 주회: 한국부흥사회 (대표회장 정민철 목사) 010-3224-2345

5(수) 저녁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 (원장 김원철 목사) 주회: 한국기독교부흥사단체 총연합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상임총재 한영훈 목사, 대표대회장 김우경 목사, 전인 위대한목회자 영성원 (원장 윤재민 목사) 010-6352-0691 세계 기독교성지지도 선교협의회 (대표교장 정상 전 국무총리, 이사장 피종진 목사)

11(화) 오전 지.선.협. 국가구기도원, 선민중앙교회 (강영준 목사) 010-9260-1091

12(수) 오후 서울 청동 주성령교회 (전숙희 목사) 010-8775-7479

17(월) 저녁 서울 임파뉴교회 (최옥순 목사) 010-2213-4448

18(화) 오후 서울 강남순교교회 (오승준 목사) 010-3942-8434

19(수) 오후 송추 반석교회 (고관능 목사) 010-2391-3001

19(수) 저녁 파주 엘리야 기도원 (강인보 원장) 주관: 한국교회연합 부흥사회 (총재 서재은 목사) 010-7142-2548

20(금) 오후 충주 금식기도원 (원장 고충만 목사) 010-3709-4968

24(월)~26(수) Mission Association MT

27(목) 오전·후 서울 신학교 (학장 김준환 목사) 주회: World 기독교 총연합회 (이사장 정진화) 010-7567-8291

28(금) 서울강남반석교회 (김사랑 목사) 010-8331-3431

31(월) 아산 새별교회, 미라클 국제선교회 (대표 김우아 목사) 010-9082-9030

대한예수교장로회 [www.nasca.or.kr](http://www.nasca.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191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개포동) Fax. 02)401-7770



신천지, 지역언론 매개로 노골적 '오픈 포교'

지역 언론인 초청 기자간담회 갖고 인터넷매체 기자들과 토론회 하고

신천지가 지역 언론들을 타깃으로 '오픈 포교'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일부 지역의 온·오프 매체들은 기사와 광고 등으로 신천지 홍보를 노골적으로 이어가고 있어 한국교계가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지역 언론 등에 따르면 신천지 부산야교보지파는 지난 4일 부산 부전동 일원에서 지역 언론인을 초청해 '2023년 상반기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지난달 22일에는 유튜브 채

널에서 인터넷매체 기자들과 '선 넘는 기자들'이란 제목의 토론회도 열었다. 온·오프 매체를 대상으로 한 이 같은 행사는 신천지를 향한 세간의 부정적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신천지 측은 토론회에서 교주 이만희를 비롯해 신천지 교리와 조직에 대한 세간의 오해가 크라며 적극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성시화운동본부 이단상담소장 탁지일 부산장신대 교수는 신천지의 적극적인 포교

활동을 두고 이미지 제고와 함께 내부 신도, 특히 2세대 젊은 신도를 결집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한다. 탁 교수는 "지역 내 신천지 홍보 전단을 받아보면 교리 홍보보다는 자신들에게 씌워진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며 "코로나19 이후 막다른 골목까지 온 만큼 내부의 젊은 2세대에게 소속감을 강화해 이탈을 막으려는 의도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탁 교수는 부산야교보지파의 활동을 부산, 울산, 경남 지역 포교를 함께 담당하는 안드레지파와의 경쟁적인 포교 활동의 결과로 보고 있다. 신천지는 특히 청년세대에게 신천지에 오면 '무엇을 위해 사는지' '왜 지극껏 공부했는지' 등 평소 생각지 못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탁 교수는 "신천지는 청년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장소라기보다는 마치 마약처럼 고민을 망각시키는 곳이 아닐까 한다"며 "친밀하게 관계성을 앞세워 다가오지만 결국 이만희를 재림 예수로 믿는 만큼 신천지는 고민을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가치 발견 이종직 목회... '게임 체인저' 될 수 있을까

이종직목회자연대 줌 토론회 "직업이 목회를 풍성하게 만들어"

교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종직 목회에 대한 의미와 가치가 새롭게 조명됐다.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목회 흐름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종직 목회자와 부교역자, 신학 교수 등이 참여한 토론회에서다. 앞서 이재철 전 100주년기념교회 목사는 "이종직 목회자가 결국 먹고사는 데 더 몰입하게 된다"고 언급하면서 이종직 목회를 둘러싼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종직목회자연대(대표 안준호 목사)는 9일 오후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현직에 있는 이종직 목사와 전도사, 교수 등 19명이 참여했다. 토론에 앞서 흥승표(아펜젤러인양교회) 장준식(미국 실리

콘밸리세화교회) 안석(숨쉬교회) 목사가 발제자로 나서 이종직 목회의 역사와 전망 등을 짚었다. "한국교회의 눈으로 본 이종직 목회 운동"이란 주제로 발표한 홍 목사는 캐나다 침례교 파송을 받아 한국에서 사역한 말콤 펜윅(1863~1935) 선교사 등 초기 선교사들이 이종직 목회자였다고 밝혔다. 농부 출신인 펜윅 선교사는 캐나다에서 터득한 현대식 농업 기술을 우리나라에 전수하며 농장을 운영했다. 홍 목사는 "한국 개신교 역사를 살펴보면 초기 선교사들은 한국인과 같이 노동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교회를 개척했다"며 "이런 전통과 역사를 거쳐 지금의 교단들이 탄생했고 성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목회자들은 성직자로서의 권

위를 내세우기보다 직업을 갖고 이를 통해 민중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친구이자 일꾼이 돼야 한다는 점을 실천했다"고 덧붙였다.

장 목사는 "현대인은 경쟁이 과열된 삶 속에서 살며 인간성을 잃어가고 있다"면서 "이종직 목회자들은 이 같은 현실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한 의미의 프로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종직이 목회 양상의 변화를 이끄는 '게임 체인저'라는 의견도 나왔다. 안 목사는 "하나님 말씀은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 고정돼 있지 않다"며 "이종직 목회는 큰 교회와 높은 연봉으로 종교 권력을 공고히 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믿는 일부의 신화를 깨뜨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직 목회자들의 경험담도 눈길을 끌었다. 카페 운영과 목수 일을 경험한 안준호 참포도 나무교회 목사는 "커피를 내리면서 이웃과 친구가 되는 법을 배웠고 목수 일을 하면서 인내하며 기도하는 법을 배웠다"면서 "나의 직업이 목회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예장합동 직전 총회장을 지낸 소강석(사예당교회) 목사는 이종직을 허용하되 목회의 출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소 목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날 이종직이 새로운 목회 대안이나 출구가 돼선 안 된다"며 "이종직은 목회에 모든 것을 투신한 후 환경과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살다보면 갈등 좌절 경험' ... 청소년·저소득 연예인 대상 무료 고민 상담

깨봄고민상담소, 각 분야 전문 상담가 출동

깨봄고민상담소(소장 송광숙)는 친구 관계, 학업 등으로 힘들어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고민 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상담소 이름 '깨봄'은 고정관념이나 편견, 부정적인 것, 미처 못 본 것 등을 깨뜨려 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상담 서비스 분야는 대인 관계 갈등, 불안 장애, 트라우마(PTSD), 가족 치료, 종교 갈등 등이다. 대인관계 갈등전문가인 송광숙 소장을 비롯 강인혜(트라우마) 유향숙 김태연(가족상담)

최인선(청소년) 권영주(예술놀이치료) 김다선(임상심리) 구수영(진로 코치) 강봉화(부부상담) 김정민(위기관리) 홍승환(발달장애)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상담을 진행한다. 김현정 이지선 상담사 등은 군상담과 중독, 낙태, 꿈 분석 등 특수상담을 맡는다. 외국인을 위한 영어 상담도 가능하다. 연예인 연습생, 단역 배우, 저소득 연예인들에게 무료 심리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필요할 경우 성격검사유형(MBTI), 다면적인성검사(MMPI), 기질 및

성격 검사(TCI), 문장완성 검사(SCT) 등 자세하고 꼼꼼하게 심리검사를 한다. 타임캡슐 만들기(꿈향아리), 순우리말로 이름 짓기, 마음으로 쓰는 손편지(깨봄 우체통), 그림카드로 보는 마음의 소리, 혼자만의 시간(명 때리고 있어도 좋은 공간), 쓱싹쓱싹 그린 그림 숨은 마음 알기 등의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송광숙 깨봄고민상담소장은 "삶을 살아가다보면 갈등과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며 "깨봄은 빗마루에 걸터 앉아 생각과 마음을 비우고 자연을 담고 성장된 나를 담아가는 곳"이라고 말했다.



초복에 곳곳 노숙인 찾아 '삼계탕 나눔'

'인천내일을여는집' 부평역광장서 직접 끓인 삼계탕 100여명에 대접

"의지할 사람도 없고 죽을 날

만 기다렸는데 이렇게 삼계탕 얻어먹고 호강하네." 11일 오후 인천 부평역 광장에서 만난 노숙인 김혜선(가명·86·여)씨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삼계탕을 먹는 동안 옷깃으로 눈물을 수차례 훔쳤다. 옆 테이블에 앉았던 오영석(가명·65)씨는 "무더운 날에 맛있는 보양식을 먹어 힘이 난다"고 말했다. 이날 '새인내일을여는집(대표 이준모 목사)은 '삼계탕 나눔 행사'를 열었다. 초복을 맞아 100여명의 노숙인에게 여름철 대표 보양식을 제공했다. 인천

내일을여는집은 코로나 기간 노숙인에게 매일 도시락을 나눠줬고, 올해 처음으로 초복을 맞아 삼계탕을 직접 끓여 대접했다.

이준모 목사는 "올해 무더위가 심해진다는 예보를 듣고 노숙인부터 생각났다"며 "이분들은 오랜 길거리 생활로 몸이 허약한 상태다. 소소하지만 삼계탕을 대접해 힘을 드리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삼계탕 나눔은 오전에 내린 폭우로 무산될 뻔했으나 행사 시작 15분 전 가까스로 비가 멎어 계획대로 진행됐다. 이 목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전했다.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NY, NJ, Hawaii, and Mexico.

### 교회선교의 선순환 (virtuous cycle) (34)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Ph.D)



## 제8차세계선교전략회의 네가지 주제

1991년부터 한국교회 선교 운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제8차세계선교전략회의가 5년만에 한국의 평창 알펜시아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6월13일부터 16일까지 “다시, 그곳에서: Rethinking Korean Mission in World Christianity Today and Beyond” 라는 주제로 550 여명의 선교사, 목회자, 선교단체대표, 국제선교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2018년에 열린 7차 선교 전략회의가 “함께, 그곳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의 주 예수 그리스도” 라는 급변하는 시대 상황의 이해와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대한 선언적 표어였다면 이번 대회는 지난 세기 동안 드러난 세계교회의 변화에 대한 재확인인 한국교회 선교운동에 대한 성찰이 주를 다루어졌다.

선교전략회의는 네가지 주제를 다루었는데 제1 선교와 거룩의 주제에서는 하나님의 선교 (missio dei) 를 강조하였다. “선교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 이상의 것이다. 선교는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상을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움직임이다. 하나님은 거룩과 사랑의 본질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선교는 거룩과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교에 초대된 우리 선교 또한 거룩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세상에 대한 사랑의 실천에 참여해야 한다.” 라고 밝혔다. 지난 10여년동안 한국선교

의 주제가 한국교회나 한국 선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줄어 가는 것은 건강한 모습으로 보여진다. 이를 8명의 담임목사들이 예배 소서를 문단으로 잘라서 주제 설교를 함으로 재확인하였다. 설교자 한 분은 “요즈음은 주위의 다른 목사님들과, 은퇴하신 목사님들과도 경쟁을 하지 않지만 이전 돌아가신 분들까지 경쟁을 하는 시대가 되어 어렵다” 라는 표현으로 분담식의 성경 강해설교의 도전을 표현하였다.

두번째의 주제는 한국선교와 세계기독교이다. “우리 가운데 이미 와 있는 세계기독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 그리고 그 안에서 한국 선교(사)에 대한 반추와 본질적인 변화를 위해 어떤 질문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세계교회와의 협력을 이뤄 갈 것인가, 등에 대한 논의한다” 를 다루었다. 이 주제는 함당한 주제이지만 시기적절하다고 하기에는 너무 오래된 주제라는 생각이 든다는 지적을 참가자들로부터 많이 받았다. 이 주제에서는 한국교회가 비서구권 교회들의 존재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다는 반성을 하고 있지만 이는 한국교회 선교역사에 대한 일부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제강의를 맡은 10명 가운데 7명이 같은 선교그룹의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관점을 일방적으로 가지게 하지 않았는지 생각하게 하였다.

1973년에 한국교회는 아시아교회의 선교지도자들과 서구선교지도자들을 초청하고



세계의 가장 큰 선교지인 아시아 선교를 아시아교회가 감당해야하고 잘 할 수 있다고 서로 협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그리고 아시아선교협의회 (Asia Mission Association)를 조직하고 아시아 국가들에 선교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아시아 선교협의회가 만들어지도록 격려했다. 그 결과로 필리핀에는 필리핀 선교협의회 (PMA) 가 조직되었다. 1986년에는 캘리포니아의 파사데나에서 제4차 AMA 대회에는 남미 선교운동의 시작이 된 코미밤을 준비하고

던 Luis Bush와 브라질 선교지도자 들을 초청하고, 아프리카에서는 나이지리아의 선교지도자 Panya Baba와 케냐지도자를 초청하여 비서구권선교운동의 필요에 대해 나누었다. 그 이후 2년 동안 매년 모임을 가지고 1988년에는 제3차 세계선교협의회 (Third World Missions Association)를 조직하여 비서구선교운동을 가시화하였다. 1989년 마닐라에서 열린 제2차 로잔대회에서는 비서구권선교운동의 대표로 TWMA 사역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런 일련의 비서구권선교운동은 그들을 선교의 진정한 파트너로 생

선교의 주역이 될 것을 예견하고 적극적으로 그 운동을 격려했던 반면에 대부분의 서구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선교운동이 비서구권에서 급속하게 전개될 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제는 국제선교단체들의 대표들이 비서구권 지도자들로 많이 바뀐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기독교인들의 분포가 북반구 중심에서 남반구로 그 축이 옮겨진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세번째의 주제는 “한국선교에 주어졌던 세계복음화의 과업 중에서 돌파하지 못했던 것은 어떤 것들이며, 그 이유로

자는 수년전에 KMQ 에서 한국선교사의 역할 변화에 대해 발표하면서 생태환경을 위한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급변하는 지구촌 환경 이슈가 간과할 수 없는 영역임을 인식하고 교회와 선교계가 시급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네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최선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국교회에 주어진 선교가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광스러운 선물임을 깨닫고 겸손과 최선을 다해 예수님의 선교 방식인 성육신적 태도로 접근할 수 있기 위해, 변화된 선교 생태계를 이해하고 한국교회, 선교단체, 선교사, 성도, 그리고 다음 세대가 각각 어떤 지속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만들고 실현해 갈 것인가를 제시하고 논의한다” 고 준비하는 마음을 담아 발표하였다.

네가지 주제를 담기위해 10개의 트랙이 준비되었다. 그것은 1) 다음 세대 선교 동원 2) 디아스포라 3) 디지털 시대와 선교 4) 변화 속의 선교단체 5) 변화하는 여성 선교사 6) 선교적 교회로 가는 로드맵 7) 자신학화 8) 전방 개척 선교 9) 텐트메이킹 10) 현직인 중심의 동반자 선교 이다. 모든 영역을 품을 수 없는 한계는 어느 모임에나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점으로 남는 것이 여성선교사들을 변화하는 여성선교사라는 트랙으로 한계를 지어서 오히려 다른 전문 영역에 속하여 활발하게 논의를 해야 할 여성들을 제한하였다는 평이 있다. 이렇게 모임을 준비하고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모임을 마치고 나면 항상 아쉬운 부분이 있기 마련이다. 대회를 관찰하고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것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각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dr.yongcho@gmail.com

각한 한국교회 선교지도자들의 선도적인 섬김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서구권선교를 이끌어 가던 국제선교단체들은 그들의 자원들을 국제단체에 흡수하는 것에 더 관심을 두었지 현지의 선교운동이 활성화되도록 돕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과정 가운데 국제선교단체들에 속해있던 한국선교사들 역시 비서구권교회들의 진정한 선교운동 발전에 관심이 적었던 것을 이번에 자성하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여진다. 1986년 AMA 대회에서 랄프 윈터같은 이는 이미 비서구권 교회들의 선교가 활성화되어

확인 후 평가를 거쳐 수정하고, 동시에 세계기독교시대에 새로이 발견해 가야할 선교의 과업과 영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한다” 고 정하였다. 이를 위해 새롭게 제시된 것은 한국에 들어온 250만의 이주자들에 대한 선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재확인하였고, 생태문제가 선교의 큰 영역임을 발표하였다. 한국에 들어온 이주자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지만 아직도 국내에서 이주민들을 위한 사역자들을 선교사로 인정하지 않는 교단들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현장 사역자들의 언급이 있었다. 필

###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P국, 중동선교전략가)

## 27강(신명기 10-26장) 모세의 2차 설교를 중심으로 (3)

기억하라

유월절로 시작하는 ‘무교절’과 맥추절, 오순절로도 불리는 ‘칠칠절’ 그리고 수장절, 장막절로도 불리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3대 절기입니다. 이 세 절기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출 34:23/ 신 16:16). ‘유월절에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평생에 기억해야 합니다(신 16:1-3). 또한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도, ‘칠칠절’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라고 주신 절기입니다. 모세는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 지니라’(신 16:12)고 하여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때에는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모두 함께 즐거워하는 때입니다(신 16:14).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흙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 것도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됩니다(신 17:1).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 어떤 남자인지 여자인지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 남자나 여자를 성문으로 끌어내고 두 세 증인의 증언으로 돌로 쳐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악을 제해야’ 합니다(신 17:2-7).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물어 율법의 뜻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행해야 합니다(신 17:8-11). 만일 백성이 무법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나 그 사람을 죽여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려야 합니다(신 17:12,13).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대로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우려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세우라고 합니다. 첫째,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울 것이며 타국인이 아닌 형제 중에서 세우려 합니다(신 17:14,15). 둘째, ‘병마를 많이 두지 않는 자이어야 하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하신 애굽으로 백성을 돌아가게 하지 않는 자를 세우려 합니다(신 17:16). 셋째,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신 17:17). 넷째,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신 17:17).



또한 모세는 왕이 된 자는 율법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신 17:18,19).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고 합니다(신 17:18-20).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레위인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돌

18:12,14). 대신 모세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 지니라’(신 18:15,18)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하

나님께 발을 받을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의 말에는 증험과 성취함이 있을 것입니다(신 18:19-22).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대로 가나안 땅 전역에 고의가 없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들이 피할 수 있도록 여섯 지역 성읍을 구별하라고 합니다(신

19:4-9). 그러나 고의를 가지고 살인한 자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신 19:11-13). 무죄한 피에 대해서는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입니다(요 14:6). 이 무죄한 피에 대한 규례는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시대가 들어서 발견되어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법대로 처리해야 합니다(신 21:1-9).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대로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한 증인만이 아니라 두 세 증인을 통해서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판결할 것이며 악이 발견되거나 반드시 악을 제거함으로 남은 자들이 듣고 다시는 그런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의 생명은 눈,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신 19:21)고 하여 악은 절대로 넘어가지 말고 그 악에 맞게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는 징계를 하라 합니다.

hfamilyfa@gmail.com

# 매일가정예배

## 월 맛난 인생 요 2:9-10 찬 545장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배후신 첫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신 유일절 어린 양으로 메시아 즉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과 재정을 사용할 때도,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도, 기도할 때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주권자(주인)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맛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맹물로 맛난 포도주를 만

김덕수 목사(하늘소망교회/ 생터사역원 LA지부장)  
dsukim@gmail.com

드신 것처럼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며 삽니다. 돈을 쓰면서, 말을 하면서, 결정하면서 선택해야 할 많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나요?"라는 질문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이 쌓여가면서 우리의 인생은 어제보다 더 거룩할 수 있으며 또 어제보다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화 성전이신 예수님 요 2:13-22 찬 455장

예수님께서 성전을 경멸케하신 이유는 성전의 의미와 역할을 통해 예수님의 존재를 설명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성전에서는 대체사장 안나스에 의해 제물 비즈니스가 성업 중이었습니다. 원래 성전은 흠이 없는 제물의 죽음을 통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함은 없어지고 탐욕을 위한 종교 활동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요 2:21)이며, 또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안나스와 장사꾼들은 돈에 눈이 멀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또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돈, 탐욕, 게임, 도박, 유희, 사치 등 한 가지만 선택하여 오늘부터 끊어 버리기를 바랍니다.

## 수 가장 큰 표적 요 4:53-54 찬 96장

예수님의 메시지는 온통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는 복음이다"로 결론이 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이심을 전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복음이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설명하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표적(miraculous signs)'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을 성경은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표적을 보여 주셨는데 가장

큰 표적은 '성육신', '십자가', '부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매여 있지 않고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표적입니다. 이미 일어난 표적(성육신, 십자가, 부활) 앞에서 우리가 바라는 물질적, 육체적 기적에 대한 바람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 목 때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막 1:14-15 찬 419장

세례 요한의 투옥은 더 많은 세례 요한의 군중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기폭제가 됩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더욱 큰 작개심을 드러내며 보인 반응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요 4:1)"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이동(요 4:3)하시게 된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처음하신 설교는 "이르시되 때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였습니다. 세례 요한

의 사명은 군중과 예수님을 연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구원자로 오신 초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다면, 우리는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세상을 향하여 '인간의 죄인 됨'과 '십자가의 구원'을 외쳐야 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분명히 지불해야 할 대가로 조롱과 핍박, 불이익도 당해야 합니다. 그 대가 지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무식하고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아봅시다.

## 금 가치의 변화 마 4:18-20 찬 449장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더 이상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상식을 넘어서는 가치의 변화'를 봅니다. 이전에는 '물고기와 그물, 그리고 배'는 어부인 그들에게 생명처럼 소중한 가치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들에게 물고기와 그물, 배는 더 이상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들은 더 큰 가치인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보임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선교사로서 우리를 직장으로, 학교로, 공동체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직장 상사의 영혼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을 낚으십시오. 주님께 낚아드립시다. 크게 외치고 출근하십시오. "나는 선교사다! 선교지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낚을 영혼을 붙여 주시옵소서!"

## 토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않는다 눅 4:35 찬 369장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어느 한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본 후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정의(Definition)를 내립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눅 4:34, 막 1:24)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때때

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넘어지지만, 삼킴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흔들 수 있어도, 깨뜨릴 수는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면서 "너는 일어설 수 없을 만큼 깨졌다"고 속삭이며 좌절과 좌절감과 무기력함을 주는데 속지 말기 바랍니다. 사탄은 결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 삼킬 수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미 사탄에게 삼키우셨다가 그 사탄을 깨뜨려 버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 교회음악 이야기(38)



윤임상 교수  
(웰스미션대학교대학원)

## 주 품에(Still)

"루"라는 소설로 베트남 보트피플에서 2018년 노벨문학상 최종 후보가 되어 일약 국제적 작가로 발돋움한 킴 투이(Kim Thu'y, 1968 -)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녀가 한국 어느 미디어와 인터뷰를 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중에는 깊은 구덩이나,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지뢰들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었습니 다. 이때 그의 어머니는 항상 "혹시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하늘을 바라보라. 생의 마지막 시간을 끄끽한 굴이 아니라 푸른 하늘로 기억하라"라고 늘 자신에게 권유했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보내는 소중한 시간에 어둠이 아니라 빛을 보고, 땅굴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라는 현명한 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권유처럼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해 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인생의 여정을 추구하는 것은 참 소중한 삶이라 여겨집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 "주 품에(Still)"에 담긴 가사를 멜로디에 담아 읊조리다 보면 이 킴 투이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교훈한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로 우리의 눈을 고정하게 합니다. 이 곡은 힐송의 2003년 앨범 "Hope"에 수록된 찬양입니다.

이 "still"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유래한 말로 "let go" 또는 "release"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가까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 그분이 주권을 행사하시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입니다. 영국의 감리교 성경학자 아담 클라크(Adam Clarke, 1762-1832)는 이 "still"이라는 말을 해석하는 데 있어 우리가 거룩한 공의를 도발하는 것을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섭리의 경륜에 대해 혹은 나의 원대로 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46편에서 가르치고 있기에 이것을 바탕으로 가사가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46편은 히스기야 왕 시대 산헤립이 이스라엘을 침공 한 때로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이 되셔서 그들을 진멸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셨던 사실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가운데 10절의 말씀은 저자가 인간들이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버리고 모든 조건에서 하나님을 바라라고 권유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못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편 46:10)

이 "주 품에(Still)" 찬양의 멜로디는 우리의 감성을 강하게 자극하는 선율로 우리 가슴을 울

리는 영감의 찬양이 됩니다. 이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내용의 중심은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힘든 순간이 올 때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권유를 담고 있습니다. 후렴구는 특히 자연의 현상을 빗대어 인생의 폭풍이 닥칠 때 하나님이 만물의 왕이심을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바다 물결이 솟아오르고 천둥이 울려 퍼질 때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is storm  
나는 너와 함께 이 폭풍 위로 날아오를 것이다.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아버지 당신은 홍수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I will be still know you are God  
나는 여전히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애에 있어 경제적인 일들로, 건강의 문제로, 혹은 다양한 일들로 인해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그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곡히 아뢰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실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궁극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조건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며 그분만을 바라보며 공의의 하나님 되심을 아뢰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CS 루이스(Clive Stales Lewis, 1898-1963)가 쓴 책 "고통의 문제"를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활동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조건에서 그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그분만을 바라는 삶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더이상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않게 하여 우리가 환란과 황폐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혹시 천둥을 만났습니까? 이때 그 천둥소리가 울리는 하늘을 또렷이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Still!"이라고 속삭이시는 그 세미한 그 음성을 사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iyoon@wmu.edu



"사람은 기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침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가정선교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68.리혼(Re婚)

사추기(思秋期)란 말이 있습니다. 결혼 전의 20대가 겪는 사춘기(思春期)에 대칭되는 말로, 주로 50대 여자들, 젊다고 하기엔 좀 늦은 것 같고 늙었다고 하기엔 아직 젊은, 그리고 아이들을 다 키운데다 집안 일도 점점 단출해져 여가가 늘어난, 외로운 이 또래 여자들이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꾸려나갈까 고민하면서 서성거리기 시작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이때쯤 찾아오는 권태기(倦怠期)를 잘 넘기지 못하면 위기를 맞게 됩니다. 결혼에는 네 단계가 있는데, 첫째 단계는 신혼시절, 둘째 단계는 결혼 5년에서 10년 쯤 되는 시기, 셋째 단계는 상대방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습관적으로 사는 단계, 넷째 단계는 같이 늙어가는 상대를 불쌍하고 애듯하게 보는 단계입니다. 네 단계 중 가장 위험한 셋째 단계를 잘 못 넘기면, 아예 요를 따로 쓰거나 아니면 트윈베드가 편하다

‘100세 시대’에 살아가면서,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보니, 권태기와 사투기가 생기게 되고, 서로 헤어지는 극

단적인 이혼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말다툼이나 간섭을 피해서로 자유롭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 생겨난 것이 새로운 결혼 풍속도, 졸혼(卒婚), 해혼(解婚), 휴혼(休婚)제 도입입니다.

4회에 걸쳐 연재된 칼럼에서 언급한 바대로, 졸혼은 ‘결혼생활을 아예 졸업한다’는 뜻으로 혼인관계는 유지하되, 서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일본의 결혼 풍속이고, 해혼은 자녀가 모두 성장하고 출가한 뒤 부부관

계를 털고, 서로 간섭 없이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한 인도의 결혼 풍속이며, 휴혼은 별거와 유사한 개념으로 ‘잠시 떨어져 결혼생활을 쉰다’는 뜻의 새로운 결혼 풍속도입니다. 이같이 이혼의 대안으로 새로운 결혼 풍속도, 신조어들이 많이 생겨났지만, 아직은 졸혼, 해혼, 휴혼 등의 단어에는 그리 긍정적이거나 호의적인 감정이 쉽게 자라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이 신조어들 자체가 모두 기존 사회에서 이혼으로 가기 위한 단계로 받아들이기 위한 말들이 라는 느낌을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이패밀리 공동대표인 송길원, 김향숙은 이혼은 안 된다는 뜻에서 리혼(Re婚)을 주창했습니다. 한국적이고, 크리스천 부부들을 위한 기독교적 새로운 결혼풍속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재구축하자’는 뜻에서 ‘단카이 Re婚(혼)’이란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 의미는 간단합니다. ‘이혼은 안돼, 결혼을 다시 시작하자’는 뜻이며, 이혼을 ‘Re婚’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일본말의 ‘Re婚(리혼)’은 ‘이혼(離婚,리핀)’과 발음은 같지만, 뜻은 다릅니다.

오랜 결혼생활로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역할과 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부부생활에 피로감이 쌓이고 결국 ‘결혼 탈진증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대안으로 졸혼, 해혼, 휴혼 등의 탈출구도 생겨난 것입니다.

결혼생활도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낡고 오래된 집에 금이 가고 지붕에서 물이 새면 다시 깨끗하게 수리하듯 부부사이도 재수선이 필요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이혼을 ‘리혼(Re婚)’, 다시 시작한 결혼생활로 바뀌어야 합니다. ‘Re婚’을 통해 신혼의 즐거움과 행복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완벽한 부부관계로 다시 돌아가기 위하여, 다시 진정으로 함뿌, 하나가 되기 위하여 (창 2:24, 마 19:6), 제10회 평신도 지도자 초청세미나(1994년 4월 27일)에서 양은순 교수가 ‘신자의 성

경적 가정생활’이란 주제강연에서 제시한 ‘행복한 가정의 7가지 열쇠’를 소개해 고자합니다. 첫 번째 열쇠(영적 성숙), 두 번째 열쇠(서로 복종), 세 번째 열쇠(사랑), 네 번째 열쇠(대화), 다섯 번째 열쇠(말씀), 일곱 번째 열쇠(예수 그리스도)입니다. 7가지 열쇠 중 가장 중요한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실 때 가정전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리혼으로 시작하기 위한 최선의 열쇠는 ‘대화’입니다. 최근 가장 큰 이혼 사유는 대화의 부족이라고 합니다. 대화에는 기술이 필요한데,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양은순 교수는 부부간의 대화를 아름답게 이끌어 갈 ‘천국방언 5가지’를 소개했습니다. ‘미안해요’(속스럽지만), ‘관찰해요’(용서의 마음으로), ‘잘~ 했어요’(부족하지

만), ‘고마워요’(작은 일에도), ‘사랑해요’(부끄럼 없이)입니다. 우리나라 부부들은 ‘사랑해요’라는 말에 매우 인색한 편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에게 말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내는 작은 것에 감동하기 때문에 ‘사랑해요’라는 말 한마디가 부부간의 대화를 촉진시키는 큰 촉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화는 가정문 제해결의 지름길이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혼을 리혼으로 이끄는 최선의 방안이기도 합니다. jaekunlee00@hotmail.com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미얀마

▲ 종족명 쉐 빨라웅 종족

▲ 인구 150,000 명

▲ 종족의 종교 상황 불교 96%, 민속 종교 3.8%, 복음화율 0.2%

▲ 복음 매체 성경 번역 요청됨, 복음 매체 있음

▲ 종족 프로필

중국에서 미얀마로 이주한 이들의 후손이다. 군부의 강압적 통제로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불안했다. 산지에서 차를 재배하는 화전민이고 저지대에서는 쌀과 대나무를 재배한다. 불교의 영향이 크나 악령에 대한 두려움도 크다. 극소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해도 핍박을 받고 쫓겨난다.

▲ 기도제목

- 1. 정치적 핍박을 받은 쉐 빨라웅 종족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해주시도록
2. 쉐 빨라웅어 성경이 번역되고 복음이 전해져 악령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쉐 빨라웅 종족 사람들이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3. 믿음 때문에 박해받는 쉐 빨라웅 종족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새 책 소개



권오균 목사

진정한 자아

권오균 목사가 ‘진정한 자아’를 출간했다.

저자는 첫 장에서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하나님과의 끊임 없는 깊은 조응한 사랑의 관계에서 드러난다. 이 자

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이다. 그러나 그 형상을 훼손하거나 잃은 장애인들이 많다.”고 제언했다. 또한 그는 책의 말미에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나는 나를 찾는다. 내 영

혼은 오직 그 안에서 살고 존재하고 행동한다. 그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나는 기뻐 된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진정한 자아가 발견된다. 상실과 슬픔, 트라우마로 고통 받던 영혼은 거룩하신 주 안에서만 쉼을 얻고 온전하게 된다.”고 결론짓고 있다.

본서는 제 1장 ‘참 자아 발견의 중요성’, 제 2장 ‘진짜 나와 가짜 나’, 제 3장 ‘그리스도는 나의 산 원형’- 1. 나의 원

천과 원형 2.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 3. 죄악 원형을 치유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원형 4. 환과 사망을 이긴 부활의 산 원형 5. 신인인체인 원형 6. 그리스도의 상징은 진짜 나. 제 4장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이루는 나’, 제 5장 ‘하나님 영광의 찬송인 나’로 구성되어 있다. 본서를 통해 “상처입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영혼들을 치유, 변화 시키고 하나님의 빛나는 자녀들로 거듭나게 도

와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권오균 목사는 성산장료교회 담임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GMU 기독교 상담학교수이며 중독치유상담사로 술, 마약 및 도박 중독자 상담 및 치유사역도 하고 있다. 저서로는 ‘참 자아를 찾아서’, ‘내게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 참 자기’ 등이 있다. 저자와의 연락은 ohgkwon@gmail.com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한인 커뮤니티를 위하여 여러 정신건강 전문가와 기관들이 함께 준비한 한인 정신건강 워크샵

2차 세미나

일시: 7월7일부터 8월11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 장소: American West University 1818 S. Western Ave. #302 LA CA 90006

"여러분이 참여한 한인 정신건강 워크샵은 LA 카운티의 한인들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Table with 3 columns: 날짜 (Date), 주제 (Topic), 강사 (Speaker). Topics include Suicide, Schizophrenia, Personality Disorder, Sleep Disorder, Nicotine, and Eating Disorder.

워크샵 참석 베네핏

- 1) 한국어와 영어로 된 정신건강 정보 안내서 무료 증정
2) 세미나 후 10명의 한국어와 영어가 가능한 정신건강 네비게이터들이 상담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기관에 영어로 서비스 신청 대신 해 줌.
3) 간단한 간식과 음료 제공

프로젝트제공



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MENTAL HEALTH hope. recovery. wellbeing.

ASK Good Life Care Resource Center 3388 W. 8th St. #103 LA CA 90005

Korean Navigation Mental Health Project 컨설턴트 (Consultant) : 김효철 (Hyocheol Kim) 213.820.8855 | khkjo@gmail.com

Korean Church of Orange County is looking for Part-time Youth Pastor

KCOC is looking for a Part-time youth pastor. We are located in Orange County, CA. We are a member of CRC denomination and our senior pastor is Joshua Nam.

Qualifications: experience preferred

Documents

- Resume
Self-introduction letter (including personal testimony, calling, ministry experience, family introduction)
Pastoral Recommendation

Salary/Benefits:

Will be discussed during interview Can change to half-time or full-time

Application Deadline/ Inquiries

Deadline: July 31, 2023 Please submit all applications through email(kccoffice2@gmail.com) For questions please call (714) 893-1652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93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Korean Church of Orange County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자(파트타임)를 청빙합니다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에 소재하고 있는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담임목사: 남성수 / CRC 교단)에서는 함께 동역할 중고등부 사역자(파트타임)를 청빙합니다.

지원 자격: 유경험자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 소개서 (신앙간증 / 소명 / 목회경험 / 가족소개)
목회자 추천서 1부

사례 및 혜택

- 사례는 면접 시 안내해드립니다.
· 추후에 하프타임이나 풀타임으로 사역하실 수 있습니다.

마감 및 문의

- 2023년 7월 31일까지
· 모든 서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kccoffice2@gmail.com)
· 전화: 714-893-1652(교회 사무실)

# 2023 뉴욕선교대회

THE MISSION CONFERENCE OF NEW YORK

"복음으로 비상하라"  
Soar By The Gospel

7.20(목) - 22(토)

집회 일정	강사
7/20 (목) 오후 7:30	류응렬 목사
7/21 (금) 오전 10:00 7/21 (금) 오후 7:30	류응렬 목사
7/22 (토) 오전 10:00	Sunny Mun 선교사

대회장

준비위원장

준비위원장



회장 이준성 목사



김재열 목사



김경열 목사

강사



류응렬 목사

와싱턴중앙장로교회  
담임목사



Sunny Mun 선교사

미주 비라카미  
세계선교 본부장

HAPPY COFFEE SCHOOL

행복한 커피학교  
손문성 선교사 협찬

할렐루야 2023

# 뉴욕 복음화 대회

HALLELUJAH NEW YORK EVANGELICAL CRUSADE

"교회여, 일어나라!"

Let the Church Arise!

7.28(금)-30(주일)

금, 토 7:30 PM, 주일 5:00 PM



강사 권준 목사 시애틀형제교회 담임목사  
시애틀교회 연합회 회장 3회 역임

대회장

준비위원장

부대회장



회장 이준성 목사



박태규 목사

부회장: 김일태  
이사장: 조동현 장로

할렐루야 복음화 어린이 대회



"JESUS is Calling  
the Next Generation"

장소: 교육관 1층  
강사: Grace Rim 목사  
어린이양육교회 2세 목사  
RCA 교단 목사, 유년부 분과위원장

교역자 및 목회자 세미나

- 일시: 7월 31일(월), 오전 10시
- 장소: 뉴욕선한목자 교회 (박준열 목사 시무)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ew York  
244-97 61 Ave. Little Neck, NY 11362  
website: www.nyckcg.org

장소 하크네시아 교회(전광성 목사 시무)  
58-06 Springfield Blvd Oakland Gardens, NY 11362

문의 • 총무 유승례 목사 Tel: 845-848-2013  
• 서기 김홍배 목사 Tel: 917-232-8401



• 장소: 노던 한양마트 앞  
• 시간: 집회시간 1시간 전